

기본연구
2010-01

기본연구
2010-01

충청남도 어촌체험관광실태와 활성화 연구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어촌체험관광실태와 활성화 연구
-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

성태규 · 이재현

ISBN : 978-89-6124-135-9 03350

기본연구 2010 - 01

충청남도 어촌체험관광실태와 활성화 연구

-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

성태규 · 이재현

발 간 사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어촌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주요 발전국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의 생산규모가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이 지역의 재생산구조가 허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향후에도 관련된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세계화와 저출산·노령화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는 우리가 쉽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런 트렌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마을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남에서는 마을에 특성에 따라 활성화가 안되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직 운영이 초기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배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의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그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문제점은 어촌에만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는, 농촌체험마을과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농촌체험마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의 발전은 무역자유화시대 지역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본 연구가 충남지역의 어촌마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성태규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요약

충남의 어촌체험마을로는 7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의 구성, 어촌계원의 참여형태, 추진방식, 지역의 지형적 조건, 주변의 관광·체험자원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방안도 마을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체험마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열의가 있는 반면, 활성화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관심도 없고 해결책을 마련할 의지도 약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문제점을 추진방식, 교육현황, 홍보, 외부연계체계,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마을이 추진해야 할 활성화방향과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는 첫째,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과 의욕이 있는 체험마을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활성화의 지가 없는 마을은 기존의 시설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활성화의 의욕을 갖춘 마을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이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원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마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지표는 실적 중심의 단순한 양적 지표 뿐만 아니라 의지와 열의를 평가할 수는 정성적인 지표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체험마을의 홍보와 연계체계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많은 체험객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사무장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교육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편의시설 확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은 자체 수익금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에는 편의시설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교육지원도 중요한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다. 농촌체험과 마찬가지로 특히 마을리더의 육성은 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어촌

체험마을에는 혁신의지와 발전의욕이 부족한 고령 노인이 마을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혁신의욕이 있다하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컨설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떤 마을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를 느끼고는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개별마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경영진단과 사업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컨설팅지원도 요구된다.

체험마을 자체의 노력도 배가되어야 한다. 체험마을에서는 첫째, 어촌계간, 어촌계 구성원간 갈등이 있는 체험마을에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갈등의 원인 주로 소득배당을 둘러싼 갈등이므로, 『어촌체험마을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갈등해소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홍보활동의 확대이다. 체험마을을 일차적으로는 지역자치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다. 지역 지자체 이외 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기업체, 유치원 등 민간교육기관, 아파트 부녀회 등등 많은 단체·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체험관광객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못지 않게 중요한 홍보방법이 “입소문” 홍보이다. 한 번 방문한 체험방문객은 그 e-mail 주소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체험마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방문객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체험객들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2
4.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어촌관광의 이론적 논의	8
1. 어촌관광의 정의	8
2. 어촌관광의 특성	9
3. 어촌체험관광의 유형	14
제3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7
1. 도입배경과 정책목표	19
2. 추진현황	19
3. 추진실적	20
제4장 국내 선진 어촌체험마을 사례	22
1. 경기 화성 백미리어촌체험마을	22
2. 경기 안산 선감어촌체험마을	30
3. 시사점	34

제5장 충남 어촌체험마을의 실태	36
1. 태안 삼동(만대) 어촌체험마을	36
2. 태안 용신 어촌체험마을	43
3. 태안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49
4. 태안 영항(영목) 어촌체험마을	53
5. 서천 송석 어촌체험마을	57
6. 서천 월하성 어촌체험마을	59
7. 서천 당정리 어촌체험마을	62
8. 개선과제	65

제6장 지역주민 및 체험객 대상 설문	68
1.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68
2. 체험객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77
3. 설문분석의 시사점	8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88
1. (광역)자치단체의 활성화방안	89
2. 체험마을에 의한 활성화방안	90

참고문헌	92
-------------	----

부 록 <설문지>	93
------------------------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 노령화로 인해 충남의 어촌과 어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장되고 한중일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어장은 축소되었고, 연안해역의 오염과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어업자원도 감소되었다. 국내 수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지역 어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유류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어업경영비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노령화·저출산이 진행됨에 따라 어업인구 또한 노령화되어 어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소득에 의존해 왔던 어촌은 어업외소득을 통해 지역어촌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어촌체험관광은 어촌의 대표적인 어업외소득사업이다. 노령화로 인해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어업노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주5일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도시민의 어촌에 대한 방문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지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우수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은 제4회 대회에서 서천 월하성마을이 우수상을, 태안 영목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충남의 일부 어촌체험마을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타 마을에서는 아직 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어촌체험관광은 어촌체험마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다.

충남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어서 체험관광분야에서 많은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지역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사업의 계획 및 관리, 운영까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었지만, 마을주민이 어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산업인 관광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어촌관광의 상품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know-how가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어민들이 농·어업 만으로는 향후 농·어촌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어민들은 아직 어업외소득으로서 체험관광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고, 또 자신감이 있다 하여도 아직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어촌체험관광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어촌체험과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을 활성화하는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수산물 판매, 기타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추가적인 연계 활성화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어촌체험프로그램 발굴
- 체험객을 위해 필요한 기반·편의시설 점검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체계 점검
- 체험소득 이외의 기타 어업외소득 발굴

3. 연구의 분석 틀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충남의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을 통해 지역의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체험마을은 자원여건(자연자연, 문화자원, 시설자원, 토산품·토속음식), 입지여건(접근체계, 배후도시와의 거리, 연계자원), 상품성(주제의 확실성, 목적관광, 참여관광, 파급효과, 독창성), 주민호응도(주민주도성, 주민협의회, 리더쉽 및 호응도, 안내교육, 계획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매년 실시하는 우수어촌체험마을의 심사는 기반여건(마을소재 어항개발 현황, 어촌 체험관광 관련 시설 현황 및 상태), 프로그램 운용 및 주민역량(마을축제 등 어촌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현황, 체험마을 조직(인력) 및 활동내용, 마을리더 및 주민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이수현황, 마을 장단기발전계획 수립현황 및 주요 내용, 어촌체험마을(농산어촌체험마을보험포함) 보험가입 여부, 마을운영 컨설팅 실시 여부, 도시-어촌 자매결연 교류(자매결연 실적, 자매결연 교류실적, 도시방문객 유치 노력), 마을 홍보 실적(홈페이지의 이용 및 활용, 전시회 또는 박람회 홍보, 홍보물 제작,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운영효과(체험마을 방문객, 소득현황, 고용효과, 기타 마을자랑 및 타 마을에의 수범사항)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매년 평가되는 우수어촌마을 심사항목을 본 연구의 기본 조사항목으로 수용하고, 기타 관련항목을 추가하여 실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관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주민의 의식, 어촌체험관광의 실적, 추진방식, 교육현황, 홍보, 외부 연계체계,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등을 조사한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주민의 의식 :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정도, 만족도와 효과정도, 개선사항 등
- 어촌체험관광의 실적 : 방문객수, 체험관광수입(체험소득, 어업외소득)
- 추진방식 : 어촌계의 특성, 사업 운영방식, 사업추진체계, 어촌계 규정 유무 등
- 교육현황 : 어촌계장, 사무장, 어촌계원 및 마을주민에 대한 생태·환경 관련 교육, 관광 및 서비스 교육, 마을 공동체 교육 분야에서의 현황
- 홍보 : 인터넷, 출판물, 언론매체 등의 홍보현황
- 외부연계체계 : 행정기관, 어업관련 외부 공공기관, 지역 내 타 체험마을/상권/숙박업소/관광지, 교육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현황

- 체험프로그램 : 어촌체험프로그램, 놀거리/먹거리/살거리 현황, 다른 사업과의 연계
- 편의시설 : 샤워장, 주차장, 세족장, 식당 등
-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 어패류 자원의 남획 및 환경오염 방지, 체험도구 관리 등

〈분석틀 및 연구방법〉

구성요소	세 부 요 소	연구방법
정주민의 의식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정도 -어촌체험마을의 만족도, 효과정도 -어촌체험마을의 개선사항	설문조사
어촌 체험 관광 의 실적	-방문객수 -체험관광소득(체험소득, 어업외소득) -타 마을에의 수범사항	자료조사 설문조사
추진방식	-주민의 참여정도 -사업 운영방식 -어촌계원간 갈등사항 유무 -어업형태 -사업추진체계 -어촌계 규정 유무 등	인터뷰 자료조사
교육현황	-인력의 전문성 정도 -어촌계장, 사무장, 어촌계원 및 마을주민에 대한 생태· 환경 관련 교육, 관광 및 서비스 교육, 마을 공동체 교육 분야에서의 현황	인터뷰 자료조사
홍보	-인터넷, 출판물, 언론매체 등의 홍보현황 및 실적	인터뷰
외부연계체계	-정기관, 어업관련 외부 공공기관, 지역 내 타 체험마을/상권/숙 박업소/관광지, 교육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현황 -자매결연 현황	인터뷰
체험프로그램	-어촌체험프로그램 -놀거리/먹거리/살거리 현황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문유형·방문시기, 동반형태, 비용, 불편사항, 체험만족도 -컨설팅 유무	인터뷰 자료조사
편의시설	-샤워장, 주차장, 세족장, 식당 등	현지답사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어패류 자원의 남획 및 환경오염 방지 -체험도구 관리	인터뷰 현지답사

본 연구에서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모든 조사는 6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체험방문객과 정주민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체험방문객을 대상으로는 체험프로그램과 체험마을에 대한 만족도, 체험불편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어촌계장, 어촌마을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경기 화성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경기 안산 선감마을, 전북 고창 하전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수마을은 충남과 갯벌 등 해양여건이 유사한 서해안지역의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어촌관광에 대한 연구는 농촌관광과 더불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어촌체험마을이 2001년부터 조성되었기 때문에 어촌체험과 관련된 연구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상기, 김정연(1995)의 연구와 김성귀, 홍장원, 박상후(2001)의 연구는 어촌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점에서 어촌관광의 여건과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어촌관광 유형별로 개발지침과 어촌관광개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씨그랜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졌다. 한국해양대학교(2009)의 영남씨그랜트 사업단에서는 영남지역의 22개 어촌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마을의 관광기반시설 등을 조사·분석하고,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어촌체험마을의 이용도 및 정주민 의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어촌체험관광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지역의 동의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2008)에서도 경남의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체험관광을 통해 어촌/어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조사와 더불어, 경남 문항마을의 어촌체험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험활동의 만족도와 어촌체험 프로그램의 재이용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전남지역에서의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연구로는 전남지역의 갯벌을 대상으로 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 곽행구(2008)의 연구가 있다. 전북지역에서의 연구로는 고창

하전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연구한 **최병길(2008)**의 연구가 있다. **홍장원,최승담(2008)**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내용 및 현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사업지침, 관리대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자료에 나타난 지역공무원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2008)**의 연구는 어촌관광이 어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승우, 홍장원, 한광석(2004)**의 연구는 수산시설에 관광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성귀, 홍장원(2004)**은 어민의 어업외 소득증대방안으로 어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어촌의 관광자원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귀(2001)**는 어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관광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어온 어촌체험마을의 문제점을 참고하면서, 충남지역에 있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의 구성, 체험마을의 운영형태, 체험자원, 주변 연계자원, 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 마을마다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촌마을별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선행연구 현황〉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민상기, 김정연(1995)	어촌지역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현장조사
한국해양대학교 (2009)	영남 어촌체험마을의 운영현황 및 이용도 조사를 통한 활성화방안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동의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2008)	경남 어촌/어항 발전방안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김성귀, 홍장원, 박상후(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문헌조사
곽행구(2008)	전남 갯벌 및 어촌마을의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방안	문헌연구
최병길(2008)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 고창하전어촌체험마을	문헌조사 설문조사
홍장원, 최승담(2008)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헌조사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2008)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 방안	문헌조사
이승우, 홍장원, 한광석(2004)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조사
김성귀(2001)	어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김성귀, 홍장원(2004)	어촌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제2장 어촌관광의 이론적 논의¹⁾

1. 어촌관광의 정의

어촌관광은 생활공간이자 어업이라는 생산활동 공간인 어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어촌주민들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어촌은 생산활동과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주체계상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마을을 의미하며, 이때 생산활동은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와 함께 농업 등과 겸업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어촌과 바다의 자원은 수산자원, 생산기반 등의 수산시설, 풍어제 등 어촌의 고유문화 혹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 드라마 촬영지 혹은 역사유산을 포함한다.

어촌관광 실행 주체는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어촌에 거주하며 공동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어촌지역 거주민이면 된다. 그리고 어촌관광의 목적은 어업여건 악화와 열악한 어촌 정주여건으로 어촌을 이탈하는 이들이 늘고 거주민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공간과 생산공간으로서 어촌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어촌관광의 정의〉

구 분	정 의
지 역	어촌(생산활동과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주 체	어촌 거주민(어업인, 비어업인)
소 재	어촌과 바다자원(자연자원, 인문자원)
목 적	어촌의 활성화(소득 및 인구증대)

따라서 어촌관광은 어촌의 생산 및 생활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어촌의 고유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1) 이승우 · 홍장원 · 이윤정(2008)을 참조하였음

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도시자본이 유입되는 해양관광단지에서의 관광활동이 아니라 어촌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활동이어야 한다. 한편 주체를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귀어인이나 귀향인들에 의한 어촌개발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촌관광은 어촌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연안의 다양한 자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2. 어촌관광의 특성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촌관광 자체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농촌관광과 해양관광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어촌관광은 1차산업이 이루어지는 농어촌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농촌관광과 비슷하며, 바다와 인접한 연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해양관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어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촌관광사업이 자칫 어업활동의 중단과 어촌사회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어촌관광을 농촌관광과 해양관광과의 비교를 통해 어촌관광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의 비교

농촌관광은 어촌관광과 그 태생이 유사하다. 즉 전통적인 농업정책에만 의지해서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하게 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한편 농촌관광의 정의는 “농촌성(rurality)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도시민들이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농가가 주체가 되어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제공하는 관광활동이며,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어촌관광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의 비교〉

구 분		어촌관광	농촌관광
차이점	소재	어촌 및 어업자원 해양자원 어촌자원의 공동재산적 특징	농촌 및 농업자원 농촌의 자연환경 농촌자원의 개인소유적 특성
공통점	목적	농어촌 활성화	
	성격	소규모 체험·교육·휴양 중심 관광	
	공급주체	농어촌 주민이 주체	
	시설	기존의 소규모 여유시설 이용 혹은 소규모 투자	
	대상	가족, 동호인, 학생	
	교류	관광객과 농(산)어촌 주민과 적극적인 교류	

농촌관광과 어촌관광의 발생배경 및 성격은 유사하고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농촌과 어촌이라는 공간과 어업과 농업이라는 산업의 차이로 인해 관광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은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에 비해 작업이 위험하고 고된 편으로, 어선어업 체험을 위해서는 보험상품 개발 및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체험이 용이한 맨손어업을 중심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동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는 체험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논과 밭 등의 농업자원은 개인소유인 반면, 방파제·어장 등의 어업자원은 마을 공동의 자산이라는 차이가 있다.

농촌관광의 경우 농산물 수확 후 잼만들기, 장담그기 등 가공식품 만들기가 주요한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어촌관광은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체험활동이 적은 편이다. 반면 어촌은 어업과 농업을 겸업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어업체험과 함께 농업체험을 병행하다면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

구분	어촌관광	농촌관광
산업측면	어업체험 어려움	농업 체험 용이
	-참여활동이 맨손어업으로 한정 -작업의 위험도가 높고 고됨 -기반시설이 필요	-농산물 수확 및 장담그기 등 가공 과정을 상품화함 -작업의 위험도가 낮음
	어업 이외 업종과 겸업 성행	농업 중심
	-대부분 겸업으로 농(산)촌관광도 가능	-농업관광 중심
공간측면	어촌 환경 다양	농촌 환경 단순
	-해양·해변·육상환경을 고루 갖 춰 다양한 경관 가능 -해양·해변은 어업 이외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 가능	-농경지와 거주지로 구성 -간혹 하천이나 산 활용 가능
	미활용의 (생태)자원 풍부	재배 작물의 다양화
	-머드, 소금, 해수, 심층수 등 다양 한 해양자원 활용 가능 -물범, 고래,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 가능	-농경지를 활용 다양한 작물 재배 가능 - 이를 관광상품화 가능
	어촌자원의 공동재산적 특성	농촌자원의 개인재산적 특성
	-어장, 어항, 방품림 등은 대부분 어촌계 공동재산적 특성	-농지, 농장은 대부분 개인소유

어촌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접이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 해변, 평야, 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업시기와 레저활동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현재 어업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해양 및 해변을 어한기에 관광객에게 레저활동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외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어촌은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머드, 소금, 해수, 심층수 등 다양한 자원과 물범, 고래,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촌관광활동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촌관광과 차이가 있는 어촌관광의 특성은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및 자원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어촌관광이 흔히 이루어지는 마을어장, 어항, 해변, 방품림 등은 대부분 어촌계의 공동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어촌관

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등 마을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주민의 화합과 참여가 잘 되는 곳에서 어촌관광이 성공하기 유리하다. 반면 농촌관광은 주된 활동지인 농경지, 농장 등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2) 어촌관광과 해양관광 비교

해양관광이란 일상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 지역사회(리·동)에서 일어나는 관광 목적의 행동으로, 직·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어촌관광을 해양관광의 하위개념의 관광형태로 볼 수도 있다.

〈어촌관광과 해양관광의 비교〉

구 분		어촌관광	해양관광
공통점	소재	바다자원을 이용한 관광	
차이점	성격	소규모 체험·교육·휴양 중심관광	스포츠, 레저 중심 관광
	공간	어촌공간에 국한	모든 연안 공간
	투자 규모	기존 수산관련 투자의 연장 혹은 소규모 순수 관광투자	대규모 투자
	공급 주체	어촌 주민이 주체	관광사 혹은 해양레저업체 (어촌 주민은 보조자 혹은 방관자)
	시설	기존 소규모 여유시설 이용 (기존시설의 연장 혹은 소규모 투자)	대규모 시설이 많음
	대상	가족, 동호인, 학생	일반 관광객
	교류	어촌 주민과의 적극적 교류	어촌 주민과의 단절 혹은 소극적 교류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은 모두 바다자원을 이용한 관광이므로 활동형태가 유사하나 어촌관광의 정의에 의해, 어촌 주민이 공급주체가 되어 소규모 투자를 통하여 체험·교육·휴양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이 해양관광과 다르다. 어촌관광과 해양관광은 관광활동 측면에서 구분하기는 어렵고, 관광의 주체가 누구인지 혹은 관광활동의 효과가 내부로 유입되는지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즉 관광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어촌주민이고 그 효과가 어촌으로 유입된다면 어촌관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어촌관광의 특성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해양관광은 관광활동의 소재측면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이 유사하나 어촌 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어업 혹은 어촌 자체를 체험하는 소규모 체험·교육·휴양 중심의 관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어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어 농어촌문화 혹은 농어업을 체험하는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어촌관광은 농촌관광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업활동은 농업활동에 체험할 수 있는 작업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농촌에 비해 지리적으로 도시에서 접근하기 어렵고(특히 도서지역), 어업인구가 적다는 점도 어촌관광 사업에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관광객들이 유사한 성격의 농촌관광이 아닌 어촌관광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다양한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은 공간이나 관련 산업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목적이나 관광성격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을 서로 연계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체험활동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관광상품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촌마을은 대부분 농촌마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촌관광마을과 농촌관광마을의 연계는 지리적으로 가능하다.

이상 농촌관광 및 해양관광과의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출한 어촌관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관광은 어촌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지역자본 혹은 정부지원에 의한 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어촌은 생산공동체로서 대부분의 자원이 공동재산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촌관광은 개인 단독으로 행해지기보다는 어촌계 혹은 마을단위로 행해지며, 어촌계원 혹은 마을 청년회가 주도하도록 한다.

셋째, 어촌관광은 어업체험과 함께 생태·J해양자원, 어장, 어선, 어항 등 어업기반 시설 등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해양 레저·스포츠활동도 가능하다.

넷째, 어촌은 대부분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겸업으로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농촌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을 함께 실시하거나 농촌관광마을과 연계함으로

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의 환경, 생태, 경관을 유지·보전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어촌체험관광의 유형

어촌체험마을사업의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이 이루어지는 관광형태는 **어업체험형**과 **바다낚시형**, **갯벌체험**과 **해양레저스포츠**, **어촌 역사문화형**, **어촌경관형** 등이다. 어촌경관형과 수산물 구매 및 시식형의 경우 별도의 체험상품으로 개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모든 어촌체험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1) 어업체험형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관광 형태로 각종 어로기법, 어류·패류·해조류 잡기, 어선·어장·어시장 등을 체험하는 유형이다. 어로기법은 각 지역에서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개맥이, 독살, 육소장망, 창경바리, 죽방렴 등의 전통어로기법을 관광자원화하거나 현재도 사용되는 기법 중에서 통발, 햇불, 대게잡이 등 독특한 어로기법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 어선에 승선하거나, 어시장의 경매를 견학하고, 가두리양식장들 방문하여 어업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아직 단순경험에 불과하며 교육목적의 체험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2) 갯벌체험

서남해안의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형태는 단순한 바지락, 굴 등 패류채취만을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방문객이 많은 몇몇 지역에서만 생태교육을 실시하거나 갯벌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3) 바다낚시

어업체험과 함께 모든 지역에서 가장 흔히 실시되고 있는 어촌체험 유형으로 어촌 체험마을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갯바위, 선상낚시, 갯벌낚시, 가두리어장 낚시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선어업이나 유어장 낚시 이외는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낚시인의 떡밥사용, 쓰레기 회수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4) 해양레저스포츠형

동해안의 강원, 경북 그리고 남해안의 전남, 경남,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원도, 경북, 제주도에서는 스킨스쿠버 체험이 일반적이고, 수온이 따뜻하고 해변이 발달한 경남과 전남은 해수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없으며, 단지 전곡항에서 어촌체험마을사업과는 별도로 어항을 분획하여 일부를 마리나로 조성하고 있다.

5) 어촌역사문화형

어촌역사문화형은 풍어제 등의 제의(祭儀), 어촌생활, 사적을 포함한 문화재, 어촌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을 말한다. 현재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어촌의 독특한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고, 체험프로그램도 어촌민박 혹은 단순한 어촌생활 체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어촌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문화제 혹은 문화를 소개할 인재도 함께 육성될 필요가 있다.

6) 어촌경관형

어촌경관형은 유람선을 이용하거나 산책로를 조성하여 다도해, 기암괴석 등을 감상하는 것으로, 이들 자원이 풍부하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경남과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어촌에서는 바다 혹은 어촌을 대상으로 한 경관감상이 가능하므로, 도시에서 즐길 수 없는 해돋이, 해넘이, 기암괴석, 해안경관, 어항경관, 어촌풍경, 출어 및 어업경관 등을 보다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 도입배경과 정책목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도하 개발 아젠다의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과 더불어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는 어촌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위축시키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도 어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그 진전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어촌지역의 고령화율은 18.89%로 전국 고령화율의 2배가 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어촌지역 인구감소, 고령화추세는 어촌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어촌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이촌(離村)방지 및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개발 잠재력과 협업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어업인 희망사업을 어촌계당 3~5개 범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의 지원규모가 작아 어촌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함에 따라 1994년부터는 연안어장목장화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10개 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당 30억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5,300억 원으로 150개 권역에 대해 권역 당 35억을 지원하는, 새로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 상반기에 들어서 정부업무 주요정책과제 심사평가 결과 소득원 개발사업 내용 중 민박시설, 횃집 등 어업인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1호로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의 근거법령이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에서 「어촌어항법」으로 변경되었다.

최근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어촌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대신 어촌관

광진흥종합대책에 따라 어촌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어촌 관광모델을 3개로 나누고 제1모델(복합공간)은 기존의 어항·어촌에 관광기능을 보완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시설로는 피서리나(어항과 마리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시설), 녹지공원, 복지회관, 생태체험장 등이고 농림수산물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추진하였다.

제2모델(다기능어항)은 기존 어항에다 관광기능을 보완하여 다기능 어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씨푸드센터, 마리나, 해상위락시설, 관광호텔 등이고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역시 2004년~2009년 간 추진되었다. 제3모델(어촌 관광단지)은 기존 어촌에 관광기능을 보완하여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수변공원, 산책로, 씨푸드센터 등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2004년~2009년간 추진하였다. 이 밖에 정부에서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휴양단지,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민속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3; 해양수산부 2006)

한편 2001년부터는 어촌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여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도입되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촌의 체험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상업시설의 조성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한 사업과는 달리 어업인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소득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세부 정책목표는 어촌관광기반시설의 조성을 통한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와 더불어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관광어촌모델 개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및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 어촌 관광사업(잠자리, 횃집 등)이 외지자본의 상업적 성격이었던 것이 반해, 체험관광은 현지 어업인이 직접 어업현장에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감상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어업·생태·해양레크레이션 체험 등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있다.²⁾

2) www.seantour.org(검색일자 : 2010.3.15)

2. 추진현황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제49조(사업비의 지원)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에 근거를 두며 2001년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³⁾ 본 사업의 목표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703억원을 투입하여 112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촌계 단위로 지원되며, 사업의 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 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2001년 - 2013년
사업규모	112개소('09년까지 102개소 지원)
사업종류	○ 관광기반시설 지원 - 관광안내소 구축, 진입로 정비, 주차장 지원, 샤워장/화장실 지원 소프트웨어 측면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실시 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어촌계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
사업시행 주체	시·도지사
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추진되어 2008년까지 112 마을 중 95개 마을을 지원하여 지원율은 85%이다. 2008년말까지 638억원을 투자하여 87개 어촌체험마을을 완공하였다.

3) 2003년부터 본 사업의 명칭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수〉

구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까지	95	2	5	9	8	7	4	29	7	18	6
2009계획	7				1	1		2			3
장래조성계획	10			1		3	2		3		1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자료 : www.seantour.org(검색일자 : 2010.3.15)

〈년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구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1	2	1	2	1
2004	12		1	1	1	1	1	3	1	2	1
2005	18		1	2	1	3	1	5	2	2	1
2006	18		1	1	1	1		8	1	4	1
2007	11				1			6		4	
2008	8		1	1	1			2		3	
2009계획	7				1	1		2			
계	102	2	5	9	9	8	4	31	7	18	9

자료 : www.seantour.org(검색일자 : 2010.3.15)

3. 추진실적

어촌체험마을은 2013년까지 전국에 112개소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다. 2007년 전국 59개 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수는 511만명으로 2006년 대비 45%증가하였고, 마을당 평균방문객은 8만7천명이었다. 체험시설 이용객은 155만6천명으로 2006년 대비 113% 증가하였고, 마을당 평균은 2만6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전국 어촌체험마을의 관광소득 총액은 523억으로 2006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마을당 평균 관광소득은 2억3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체험소득은 137억6천만원으로 2006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2007년 마을당 평균 체험소득은 2억3천만원이었다.4)

〈년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단위 : 마을, 천명, 백만원)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2006년(A)	2007년(B)	전년대비 C=B-A	증가율 (C/A*100)	'07년 마을당 평균
마을수			59	59	0		
방문객수			3,521	5,119	1,598	45	87
체험시설 이용객수			731	1,556	825	113	26
관광소득	합 계		40,801	52,361	11,560	28	887
	체험소득	소계	7,904	13,767	5,863	74	233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4,372			74
		민박		2,800			47
		식사비		3,384			57
		특산물판매 등		3,211			55
	간접소득		32,897	38,594	5,697	17	654

주) '06년까지는 어촌마을의 생업 등을 이유로 연간실적을 임의로 추정 산출한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신뢰도가 매우 낮아, '0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대장으로 작성토로 하고, 이를 통한 실적을 통계자료로 활용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2001-2007)

제4장 국내 선진 어촌체험마을 사례

1. 경기 화성 백미리어촌체험마을

1) 추진방식

백미리마을은 2009년 5월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2009년 농림식품부로부터 대상을 수상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가구수는 90호이며, 주민은 320명이다. 이 마을은 2005년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하였고, 2007년에 어촌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로 선정되었고, 2008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2009년에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공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촌체험마을 대상을 수상하였다. 마을어업형태로 어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가무락, 바지락, 낙지, 굴, 동죽이다.

어촌체험마을을 자율관리어업⁵⁾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이전에는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어획자원을 남획하였고, 무계획적인 생산과 판매가 성행하였다. 마을대표의 리더쉽도 부족하였고, 어장관리 및 어촌계의 운영이 미숙하여 어촌계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기반시설도 낙후되었고 자금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공동작업장, 수산물판매장이 노후화되었고, 환경오염도 유발되었다. 낙후된 화장실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초래하였고,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했던 공동체 사무실로 열악하였다.

5) 자율관리어업은 1990년 후반부터 WTO의 출범, UN해양법협약 발표,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체결 등 수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수산업발전방안으로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실시하였다. 자율관리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지역별 및 어업별 분쟁해소,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안정화와 어촌사회 발전을 목표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장관리는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 수준으로 자원을 보전하고자, 어구수 축소, 그물코크기 확대,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제한, 어장휴식, 생산시기 및 생산량 조정, 특정어구 어법 상·제한, 종묘(패) 방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개선사업은 비용절감, 수급조절 등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공동생산, 공동판매,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ON/OFF LIME 판매량 구축,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소득증대 등의 사업이다. 질서유지는 지역간, 어업간 소득격차,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어장감시조 운영으로 불법어업 추방, 수산관계법령 준수, 교육 참여, 선진지 견학, 지역간·공동체간 분쟁 해결 등의 사업이다. 어장관리는 어업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 및 보전을 위해 투석·해중림·해조장 등 어장환경 개선,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해적생물 구제, 폐어구·자기발생 폐기물 등 수거, 어장 또는 해안가 청소등의 활동을 말한다. 자율관리는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자율관리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난제는 공동체 사업확대로 인한 수익배분 갈등이었다. 2005년 69명의 구성원이 2009년에는 114명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백미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별 결산보고, 수시 운영위원회 개최, 카드단말기 도입 등의 투명 경영을 통해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1인당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마을을 2008년이 도입하였고, 유어장 운영을 통해 체험소득, 수산물직거래와 '김' 전자상거래를 시행하여 추가소득을 창출하였고,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는 등 소득원을 다양화하였다.

자율관리를 추진한 이후 방문객과 체험객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방문객은 2006년 25,000명에서 2009년 52,000명으로 연평균 27% 증가하였고, 체험객은 2006년 5,400명에서 2009년 40,828명으로 연평균 164% 증가하였다. 어패류 생산량은 2005년말 328톤에서 2009년말 510톤으로 155%증가하였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유어장 수입 및 어민 소득은 205년 15억원에서 2009년 44억원으로 340% 증가하였다. 백미리마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로 선정되었다.

어촌계장이 체험마을을 총책임지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위원장,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어촌체험마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간사를 두어 체험마을의 재무를 총 관리하고 있고, 1인의 정보화 사무장, 3인의 체험사무장을 두고 있다. 정보화사무장은 마을홍보, 홈페이지 관리, 주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험사무장은 매표 및 체험안내,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와는 지원·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의 어촌계장은 제일 먼저 어촌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어촌계가 노인분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에 비해 백미리는 젊은 사람들이 어촌계의 전권을 위임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촌계는 어촌계에 명의만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계원을 제명하였고, 백미리에 살고 있어도 어민이 아닌 사람이거나 백미리에 땅을 사서 집은 지은 외지인도 어촌계원으로 받아 들였다. 단 조건은 백미리의 마을사람으로 사업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어촌계원이 늘어나면서 1인당 배당소득이 줄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어촌계의 개방성을 유지하였다. 백미리마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인의 사무장을 지역주민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외지 젊은이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시간제 근로학생을 채용하

여 주차장 정리, 체험객 안내 등을 하고 있다. 계약제 외지인은 체험객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급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지역 계원은 체험객에게 충분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백미리체험마을은 모든 것을 마을에서 자율관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탁 및 임대방식의 경우, 외지 사업자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여 마을이미지를 훼손하는 약점이 있다. 백미리마을은 당장은 편하고 힘들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이미지 관리를 위해 자율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마을은 중앙정부의 여러 농·어촌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 자율관리어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모든 인터넷 관련 정보는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터넷, PC교육도 정보화마을을 활용하며, 프로그램별 사무실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경비절약과 더불어 연계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체험객을 대상으로 백미리 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하는 특산품을 판매하여, 어촌체험마을이 필요한 부분과 정보화마을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klein garten사업, 체제형 민박마을사업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촌체험마을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고,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신청도 계획 중에 있다.

2) 교육현황

이 마을의 사무장은 외지 전문인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화마을 사무장이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 어촌체험마을 등의 인터넷 관련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어촌체험관련 사무장도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백미리어촌체험마을 운영진 교육현황〉

직책	교육명	교육기관
어촌계장	어촌체험마을 가이드교육 어촌지역개발리더육성과정 1~4차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지역재단
사무장	어촌체험마을 가이드교육 어촌체험관광 가이드과장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워크샵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자교육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촌어항협회 경기도
간사	수산선진국 해외연구(일본)	한국수산회

그러나 아직 어촌계원은 어패류, 해양·갯벌 생태 및 환경, 서비스 mind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 체험해설사와 같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여야 체험객에게 체험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월평균 2회 인터넷, PC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체험관광·자율관리의식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서비스교육, 마을소개 교육, 체험지식 교육, 마을 단합의식 교육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3) 홍보

이 마을은 정보화마을을 활용하고 통합적 홍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을 통해 독자적인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였다. 백미리정보화마을 홈페이지(baekmiri.invil.or)의 방문객수는 2009년 9월 30일 기준 54,908명에 달하고 있으며, 체험객·숙박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보화마을에서 담당하고 있다.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소문이기 때문에, 일단 체험객·숙박객에게는 정보화마을에서 e-mail 등을 통해 사후에도 백미리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이 마을은 50%이상의 재방문객을 유지하고 있다. daum에 키워드광고를 하고 있고, yahoo 포털사이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이 마을은 홍보를 위해 리플렛 2만부, 홍보책자 1만부, 마을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철도청과 협의하여 백미리마을 홍보동영상을 전국의 기차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농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매결연

은 어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백미리마을 자매결연 현황 및 활동〉

자매결연 일자	자매결연업체	주요 활동
2006.1.10	(주)황해훼리	농번기 일손돕기 특산물 구매
2006.5.2	삼생생명 영등포지점	매년 5월 수산물 판매행사 삼생생명 FC가족 여름체험캠프 ※ 2008년 올해의 도시~어촌교류상 수상
2008.6.15	동수원병원	주민 무료건강검진
2008.7.21	산본양문교회	특산물 구매 자원봉사(항·포구 대청소)
2009.6.5	애슐국악합주단	특산물 구매
2009.6.5	경기벤처협회	특산물 구매 사무기기 기증

이 마을은 개별 체험,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전개하고 있지만, 백미리라는 지역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 15회, 신문4회, 잡지1회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백미리의 브랜드를 홍보하였다. 그리고 백미리마을이 정보화마을, 어촌체험마을, klein garten사업, 체제형 민박마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추진하는 여러 공모·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역브랜드 제고이다.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미리’라는 지역브랜드가 더욱 알려진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4) 외부연계체계

이웃 어촌체험마을과도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물때가 안 맞아서 갯벌체험을 할 수 없다거나, 체험객이 수용한도를 초과하면 인근 선감어촌체험마을로 소개하는 등, 체험마을 상호간의 상생관계를 맺고 있다. 인근 항구, 문화/시설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인근 궁평항과 백미리마을과 상호 소개하고 공생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인근 상권과 외지 민간숙박업소와도 협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마을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체험마을 주변에는 잡상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지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민박업소의 경우 체험객을 소개해 주는 대신 마을이미지 관리

를 위해 지나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어촌계에서 협의하는 형태로 협력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5) 체험프로그램

이 마을이 체험프로그램은 이 마을내에서의 one-stop 체험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어촌체험 뿐만 아니라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갯벌체험(굴따기체험, 조개캐기 체험, 고동·게잡이 체험, 낚지잡이 체험)과 낚시체험(망둥어 낚시체험, 건강망 체험, 바다낚시체험), 무인도체험(도리도), 스킨스쿠버체험, 빨썰매타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놀거리로는 주차장에 air-pool, 족구장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놀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먹거리로는 주변 식당, 살거리로는 정보화마을을 통한 통신판매와 수산물판매센터를 통해 지역특산물과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에는 독살체험, 사들체험과 같은 전통어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백미리 어촌계 수산물 판매장



백미리 어촌계 공동작업장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이전에는 잡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생태보전에 대한 체험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갯벌체험의 경우 가족단위는 200명을 기준으로, 단체체험객은 100명을 기준으로 무조건 1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투입하여 생태에 대한 설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백미리 어촌체험 관련된 생태책자인 『화성 백미리마을』 소책자를 만들어 생태체험을 돕고 있다.

이 마을도 아직 사철체험을 위한 충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철 체험을 위해 이 마을은 김제작 체험, 별보기체험, 굴까지체험 등 겨울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바다를 막아 소형 요트시설, 카약시설도 계획 중에 있다.

6) 편의시설

체험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다. 샤워장, 화장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 및 낚시 체험객을 위한 수중 화장실, 좌대낚시터가 설치되어 있다. 마을 정보화센터에는 별자리 관찰을 위한 천체망원경, 갯벌생태 관찰용 현미경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체험객을 위한 갯벌마차가 운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해 물놀이장과 축구장도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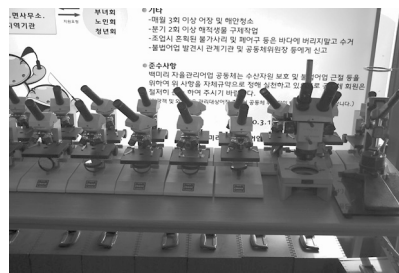
물 풀장



축구장



천체 망원경



갯벌 관찰용 현미경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세족시설

7) 어장관리

어촌계는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원이 체크하여 연말에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익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어촌계에서도 제명하고 있다.⁶⁾

자원의 남획방지를 위해 품목별로 1인당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전체 어장 및 체험장에 대해 어장휴식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갯벌의 경우 A/B로 나누어 매달 번갈아 가면서 휴식월제를 실시하여, 어자원 보호와 체험객의 충분한 체험을 만족시키고 있다. 경기도수산사무소와 공동으로 바지락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종묘배양과 살포로 어족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갯벌체험 마차



정보화마을 교육장

6) 참고자료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규칙』 참조

2. 경기 안산 선감어촌체험마을

1) 어촌계 운영

선감어촌체험마을은 2007년 현재 118가구에 521명이 거주하고 있다. 선감마을은 포도농장이 주위에 그리고 야트막한 산이 뒤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완만한 간척지가 있으며, 주위에 염전이 산재하고 있으며, 인근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 영어체험마을 안산캠프가 위치하고 있다. 선감마을은 2008년 우수 어촌체험마을선정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이다.

선감어촌체험은 선감어촌계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4년전까지는 어촌계 전원이 참여하였지만, 선감마을의 갯벌체험장이 안내소로부터 멀어서 트랙터를 사용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점차 젊은 층의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일부만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분적 참여는 의도적 배제 동기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주민과 비참여주민간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 선감어촌계는 외지인에게는 개방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선감마을의 갯벌자원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외지인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없으며, 외지인의 경우 기존 어촌계원과는 달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영은 어촌계가 담당하고 있지만 마을의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와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체험마을의 식당은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17,000명의 체험객이 방문하여 2억6천6백만원의 체험소득을, 2007년에는 22,000명의 체험객을 대상으로 3억5천9백만원의 체험소득을 올렸다.

2) 교육현황

어촌계에서는 주민들에게 생태교육,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서클인 「생태보존」은 갯벌생태에 대하여 마을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체험현장 투입인원 전부가 부산의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가이드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선감마을을 이전에 마을주민의 불친절로 인해 체험객이 온라인 상에 선감마을을 비방하는 체험담을 적어 놓은 사건 이후로 체험객에 대한 서비스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결국 어촌계장의 설득으로 인터넷 상의 체험담은 자진 삭제되었지만, 주민들의 친절 및 서비스정신이 체험마을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3) 홍보

홍보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마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고, 인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영어체험마을, 숙박업소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4) 외부연계체계

다른 어촌체험마을과 비교하였을 때 선감마을이 지니는 특징은 외부기관과의 연계에 있다. 선감마을은 주)월드이벤트로부터 이벤트컨설팅을 받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금을 받아 이벤트개발에 힘쓰고 있다. 인근 백미리어촌체험마을 등 인근 체험마을과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에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갯벌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선감마을을 경기관광공사와의 체험관광을 협력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중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갯벌체험을 실시하였으나,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스페셜과 물때를 맞추어야 하는 갯벌체험프로그램을 맞추기가 힘든 문제로 인해 지속되지는 못했다.

5) 체험프로그램

선감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갯벌체험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갯벌체험은 조개잡이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어업 체험으로는 숭어를 잡는 후리질 체험⁷⁾이 있다. 갯벌과 관련해서는 이외에 갯벌 썰매와 갯벌 사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감마을은 더 많은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용 물놀이 풀장인 에어바운스, 서바이벌게임, 4륜 바이크, 승마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근 특산물인 고구마캐기 체험과 인근 포도농장의 포도따기체험이 병행하고 있다. 이색체험거리로는 몽골텐트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종일 체험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갯벌체험, 오후에는 만들기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양초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먹거리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식당을 건축하고 부녀회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판매하고 있다.

7) 후리질 체험은 썰매에서 밀물로 물때가 바뀔 때 물과 함께 들어온 고기를 그물로 몰아서 잡는 전통어업방식이다.

5~6월과 9~10월 사이에는 주로 학생과 유치원 학생들이 갯벌체험을 많이 오고 있으며, 7~8월 사이에는 가족단위의 체험객이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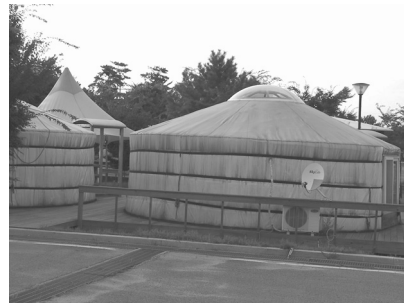
승마체험장



물놀이 시설



갯벌 사파리 차량



몽골 텐트 체험시설

6) 편의시설

선감마을의 편의시설로는 안내실, 화장실, 터널식 샤워실, 휴게실 등이 갖추어진 종합안내소가 있다. 2개의 파고라, 3개의 원두막, 1개의 세족장이 있으며, 1곳의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다.



안내소의 홍보판



터널식 샤워장

7) 어장관리

어촌계에서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세워놓고 있지 않지만, 어장관리 및 조성을 위해 갯벌체험장에 해사를 계속해서 살포하여 조개와 바지락의 번식을 촉진하고 있다.

3. 시사점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된 마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화마을이다. 백미리마을 뿐만 아니라 고창 화전마을도 어촌체험마을을 정보화마을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마을과의 통합운영은 어촌체험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정보화마을의 교육장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화마을의 on-line 판매망을 어촌체험마을의 특산품 판매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정보화마을의 know-how로 어촌체험객에 대한 고객관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잇점은 홍보에 있다. 정보화마을은 자동차 네비게이션에서도 검색할 수도 있고, 교통안내판도 어촌체험마을보다 잘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화마을과의 통합운영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통합운영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이다. 대부분의 갯벌체험이 자원고갈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 추진·운영과정에서 어촌계원간, 마을간 불협조로 나타난다.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을 관리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촌계의 독특한 갈등을 완화하는데 자율관리어업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갯벌체험은 “물 때 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밀물때에는 갯벌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감마을에서는 외부 컨설팅을 받기도 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숙박체험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체류체험객은 갯벌 체험 이외의 다른 체험 혹은 재미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사계절 체험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관련이 없어도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재미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어촌체험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물론 갯벌도 넓지만, 이들 마을은 체험자원의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자원을 유지하였다. 백미리마을에서는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백미리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규칙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의 궁극적 목적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관광 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촌체험이 가족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관광이 지역에서의 먹거리와 살거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백미리에서는 주차장에 어촌계의 수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체험관광객이 지역 수산물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식당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선진 어촌마을에서는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체험마을 리더육성과정, 체험마을 가이드교육, 마을단합의식 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체험마을 운영진을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다. 어촌에 있는 어업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외지인에게 배타적이고 통명스러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교육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홍보강화 및 관리철저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리플렛 등을 통해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입소문이다. 한번 다녀간 체험관광객이 다른 체험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한 번 다녀간 체험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체험객에게 지속적으로 마을의 체험정보를 e-mail을 통해서 전달하여, 방문객의 50%이상을 재방문객으로 유인해야 한다.

체험마을사업을 마을단체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감마을의 경우, 마을부녀회에서 칼국수 식사사업을 전개하고, 마을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체험을 같이 하고 있다.

제5장 충남 어촌체험마을의 실태⁸⁾

충남에는 2010년 현재 7개의 어촌체험마을이 구성되어 있다.⁹⁾ 본 장에서는 충남 어촌체험마을의 조성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충남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마을명	위치	조성연도(준공일 기준)
태안 만대마을	태안군 이원면 내리 384	2007
태안 대야도마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34	2007
태안 영목마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29	2007
태안 용신마을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910	
서천 월하성마을	서천군 서면 월호리	2004
서천 송석마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2001
서천 당정마을	서천군 중천면 당정리	2007

1. 태안 삼동(만대) 어촌체험마을

1) 마을 개요

서울로부터 174km, 대전으로부터 181km에 위치한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갯벌이 발달하여 이를 통한 각종 갯벌 체험이 가능한 마을이다. 인근에 해수욕장, 양식장, 벚가리 마을, 어항 등 다양한 연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태체험이 가능한 갯벌과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사계절에 걸쳐 갯벌관찰체험(설게잡이, 조개잡이), 바다체험(일몰/일출), 원시어업 체험(사두질, 전통낚시) 등이 가능하고, 해수욕, 갯바위낚시, 잠수체험등 해양스포츠가 가능하다. 농촌, 산지, 도서휴양림을 활용하여 농촌체험, 식물 생태관찰, 도서탐방, 산책 등도 즐길 수 있다.

8)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2001-2007)을 참조함

9) 서천 다사리마을은 2010년 8월 지정이 취소됨

〈삼동(만대)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프로그램 현황〉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일출, 일몰감상, 기암괴석, 해안절경
	먹거리	-특산물 : 밀국낙지, 바지락탕, 생선회 -기타 : 생선요리
	즐길거리	-갯벌체험(바지락잡이, 설게잡이) (입장료 1인당 4천원) -갯바위낚시(1인당 미정)
	주변관광	이원방조제전경, 벚가리대마을, 꾸지포해수욕장
홍 보		태안군 홈페이지(taeon.go.kr)

2) 추진방식

만대 삼동어촌마을은 2005년에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체험관은 2007년 11월 준공되었다. 만대마을은 16개 부락 중 11개 부락이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 큰 광역 어촌계이다. 삼동 어촌체험마을은 내1리, 2리, 3리의 지역에 체험마을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삼동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한다. 삼동 어촌체험마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체험마을에 대한 어촌계의 소속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광역 어촌계이기 때문에 체험마을에 대한 어촌계의 관심이 적었다. 최초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을 당시 체험장소가 없어서 개인 사유지에 체험장소를 지정하였고, 폐교에 체험관을 조성하려 했지만 광역 어촌계와 삼동 주민과의 갈등으로 어촌체험마을 반납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에 어촌계 총대가 체험마을을 포기하려 하자, 외지인이 사무장을 자원해서 현재 어촌계의 별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촌계의 위탁을 받아 개인 사유지에 사무장 혼자 힘으로 일정 금액의 어촌계 기금을 납부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개인의 운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원의 열의는 낮은 편이다. 또한 사무장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장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330명의 어촌계원 가운데 27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체험객이 방문할 때 참여하는 어촌계원에게는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촌계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촌계와 비어촌계, 참여주민과 비참여주민과의 갈등은 잠재되어 있다. 비참여주민의 경우에는 체험마을 조성 이전에는 마을대로 조개를 채취할 수 있었으나, 체험마을 조성으로 지금은 먼해지로 되어 주민들의 조개채취가 금지되어 불이익을 당

하고 있다. 또 참여하는 어촌계원은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면서 일당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비참여 어촌계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 개인의 노력으로 2009년에는 약 4,600명의 유료체험객이 방문하였고 관광버스가 8대 방문하였다. 2010년의 목표는 6,000명이며 현재까지 32대의 관광버스가 방문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삼동 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년간의 수익금을 재투자기금을 마련하여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험마을 자체에 대해 무관심했던 어촌계와 주민들의 호응도 많아지고 있다.

3) 교육현황

삼동 어촌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어촌계원의 전문지식은 낮은 편이다. 특히 어촌계원이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체험관광사업이 이들에게는 자기사업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구태여 전문지식을 갖추려는 의지 또한 빈약하다. 체험객을 대상으로 해양생태 및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가 없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마인드도 낮은 편이다. 이들에 대한 어업과 해양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및 컴퓨터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삼동 어촌체험마을에서는 태안의 푸른태안21과 협력하여 해양생태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푸른태안21이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과 지방의제21과의 연대는 바람직한 협력관계이다. 또한 태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6개월 과정의 체험전문가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과정에서도 어업과 해양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블로그와 포토샵 등 PC교육, 농촌문화관광, 농기계 관련 교육 등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교육과정이 있으니, 이를 어촌계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농촌체험 뿐만 아니라 어촌체험과 관련해서도 관련 교육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4) 홍보

삼동 어촌체험마을의 홍보도 미약한 형편이다. 삼동마을 체험객 가운데 입소문에 의해 정보를 받은 체험객이 거의 절반,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를 얻은 체험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어촌체험마을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수동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촌체험마을의 홈페이지는 정보화마을 중앙협회가 운영하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보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의 어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태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태안농어촌체험관광(www.taengt.net)이 연계되어 있으나, 체험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홍보와 인터넷 예약 등을 위해서는 인터넷홍보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인력의 부족으로 사무장이 체험객 동행, 체험안내 등을 도맡아 해야 하는 현 상태에서 자체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접수, 간조/만조시간 정보제공 등은 삼동마을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체험마을 자체의 팸플렛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원면의 체험마을 공동 팸플렛도 없다. 삼동마을을 독립된 체험마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원면의 식당, 숙박시설,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어촌체험마을, 관광지 등 체험관광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팸플렛을 만들되, 개별마을 단위보다는 이원면의 종합 체험관광안내도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 많은 외지인에게 태안하면 안면도를 연상하게 된다. 태안 북쪽에 위치한 이원면은 외지인에게 낯선 지역이다. 이원면사무소, 삼동마을, 벚가리마을 등이 이원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6·7월에는 벚가리 마늘수확체험을 이원면과 삼동마을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여름에는 삼동마을의 조개잡이 체험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가을에는 벚가리마을의 엽전체험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원면의 인지도를 외지인에게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원면사무소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보다 크게는 태안군청의 역할도 필요하다. 관광휴양지로서의 태안브랜드가 높아져야 이원면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원면의 브랜드가 높아져야 체험마을도 홍보될 수 있다.

5) 외부연계체계

이 마을 인근에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인 뱃가리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뱃가리마을은 연간 약 10,000명이 방문하고 있다. 뱃가리마을은 정보화마을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 뱃가리마을에서는 뽕설계잡기 체험, 갯벌 체험 등과 같이 삼동마을과 중복되는 체험도 있지만, 염전체험, 마늘수확 체험과 상호 보완적인 체험도 있다. 삼동마을을 뱃가리마을과 협력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체험관광을 추진하는 마을간 상호 경쟁은 두 마을에 공히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체험객이 일시에 방문하여 조개 등 어장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상호 인근 체험마을로 소개해 주어야 한다. 뱃가리마을이 잘 되어야 이원면에 오는 방문객이 더욱 많아져 삼동마을에도 도움이 되고, 반대로 삼동마을이 잘되어야 뱃가리마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상호 중복적인 체험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원면에 숙박하면서 하루는 어촌체험을, 또 하루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인근 숙박업소와 상권과도 협력적 보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삼동마을의 체험객은 가운데에는 숙박손님이 많다. 손삼동마을에도 펜션과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 민박업소와도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펜션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숙박객에게는 민박업소와의 경쟁을 통해 숙박요금을 인하하지 말고, 인근 민박업소를 소개해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인근마을이 같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인근 식당과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삼동마을에는 현재 식당이 없다. 정부지원금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식당시설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리해서 식당시설을 운영하기 보다는 인근 식당과 연계해서 체험수확물을 활용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식당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6) 체험프로그램

주된 체험프로그램은 갯벌체험이다. 바지락잡이와 설게잡이, 독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철체험이 되지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실거리 가양주 제조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여건이 부족하여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열악한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독살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만 1년이 소요되었다.

이 마을의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먹거리와 팔거리와의 연계이다. 삼동마을에는 자연그늘 공간이 없는 관계로 체험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인근 지역에 식당이 발달하지 않아 먹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협위판장 등이 없고 어촌계의 소극적인 협조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사려고 하여도 살 것이 없다고 체험객들이 불평할 정도도 팔거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팔거리와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근 마을을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삼동마을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문화체험으로 도자기 체험, 염전체험, 망둥어 배낚시, 대하양식장을 방어양식 및 낚시터로 전환하여 해수낚시터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팔거리로 용신마을과 연계하여 간장게장을 구상 중에 있기도 하다.



가양주 제조체험 설비



갯벌 체험 장비

7)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계획단계부터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방문객센터,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체험객을 위한 세족시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인근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숲이 없어서 식사를 준비해 온 체험객이 그늘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당도 필요한 실정이다.



방문객 센터



방문객 센터 내부



펜션단지



주차시설

8)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규정 및 매뉴얼이 없는 상태이다. 아직 어패류 자원의 고갈을 염려할 정도의 체험객이 방문하기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성은 적지만, 향후 체계적인 생태자원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관리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도구 관리 등도 잘 정돈하고 있다.

2. 태안 용신어촌체험마을

1) 추진방식

용신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어촌계의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향후 어업소득 이외에 비어업소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모든 어촌계원들이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도 제한되어 있지만, 의도적 배제는 어촌계의 폐쇄적 운영에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어촌계원의 자격을 논의하는 어촌계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총대에서 계원 1인당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어촌계원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마을 전체의 사업이 되지 못하고 일부 어촌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용신마을은 보다 개방적인 어촌계를 구성하고, 어촌계원에게 체험마을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마을사업을 참여하려는 어촌계원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1인당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어촌계원을 제한하려는 근시안적인 욕심으로는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다. 사업이 활성화되어야만 1인당 배당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먼저 사업활성화를 위한 보다 많은 어촌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계원에게 개방적 이되, 엄격한 체험마을사업 참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이상 청소, 체험객 현장 이동 등 체험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을 두어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배당을 둘러싼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교육현황

용신마을은 2010년 1월부터 사무장 전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어촌계원인 사무장이 회계관리, 예약 및 체험객 관리, 행정관리, 체험설명 등을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며, 또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는 힘든 상황이다. 독자적인 홈페이지 관리능력도 필요하며, 체험객에게 해양 및 갯벌에 대한 생태·환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어촌계원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어촌계원에게는 무엇보다도 체험마을사업과 어촌계운영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체험마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마을 공동의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협력과 협조가 절대적이며, 마을주민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이 용신마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2번의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는 실질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선진마을 방문 등 체험교육이 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어촌계의 빈약한 재정으로 선진마을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장에 대한 PC 및 홈페이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생태 및 환경에 대한 지식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태안군에는 문화관광을 위한 문화해설사는 있으나 해양해설사는 없는 형편이다. 지금은 체험객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이 단순히 체험객을 체험장소로 이동시켜 주고 채취 방법 등을 설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체험객에게 생태 및 어류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서비스교육도 필요하다. 체험객을 손님으로 친절하게 접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차원에서 교육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푸른태안21」과 같은 지방의제21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촌계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태안농업기술센터의 체험전문가과정에 참여하여 개인적인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먼저 어촌계원의 인식전환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하고, 지역내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와 『충청 Sea Grant 사업단』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해양, 생태, 환경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위해서는 태안군에서의 지원도 요구된다. 지자체의 지원이 주로 시설위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사업주민에 대한 의식교육 및 전문교육을 알선·지원해 주어야 한다.

3) 홍보

현재 홍보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www.seantour.org)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태안농어촌체험관광(taeangt.net)에도 올라와 있지 못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어촌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독자적인 팸플렛도 제작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신마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용신마을을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태안교육청, 충남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단체체험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무장에게 PC교육을 통해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자체 팸플렛을 제작하여 태안 공용터미널 등 주요 교통건물, 주요 숙박업소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 태안내 숙박업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홍보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4) 외부연계체계

용신마을은 외부기관과 원활한 연계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용신마을에서는 인근 근흥중학교를 통해 타 학교에 홍보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면사무소, 수협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태안내 인근지역의 다른 관광지, 다른 체험마을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당일 체험객은 어촌체험만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으나, 숙박방문객의 경우 어촌체험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혹은 기타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안군의 다른 농어촌체험마을, 농어촌체험농장, 농어촌체험축제 등과 상호 협력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 농어촌체험마을과 상호 먹거리를 개발하여 농촌의 특산품을 어촌체험마을에서 판매하고, 반대로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어촌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의 공동판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태안군 체험관련 마을 및 축제>

구 분	내 용
농어촌체험마을	벚가리마을, 조개부리마을, 매화뚝방마을, 별주부마을, 노을지는 갯마을, 만대어촌체험마을, 영목마을, 대야도마을, 범산지연꽃체험마을
농어촌체험농장	상옥농장, 다솜농원, 다운친환경농장, 산들바농장, 트랙에, 땅이친구, 곰섬나루, 백화산농원, 가을국화
농어촌체험축제	조개부르기제, 정월대보름이야기축제, 별주부마을용왕제, 정월대보름축제, 바지락왕축제, 육쪽마늘캐기축제

숙박업소와의 연계체계도 요구된다. 용신마을은 자체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하여 용신마을을 홍보하고, 반대로 용신마을을 찾는 체험객에게 숙박시설을 소개하여 상생의 방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차원의 연계체계도 미흡하다. 체험마을 운영, 체험프로그램, 홍보전략 등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보지 못했다. 특히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근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태안군의 다른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체험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지, 관광업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태안군청을 통한 외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태안군은 국내의 6개 지자체(서울서초구, 강서구, 강원 동해시, 경남 고성군, 충북 제천시, 경기 수원시), 중국의 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태안군의 홈페이지에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의 체험마을을 링크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도 태안군의 농어촌체험마을, 관광지 등을 링크할 필요가 있다.

5) 체험프로그램

용신마을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조개잡이체험 등 갯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조개잡이 체험은 만조와 간조시간이 수시로 바뀌고, 겨울에는 운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 때를 놓쳤을 때, 그리고 사시사철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최근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견된 도자기와 관련해서 학교 등에 도자기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도자기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태안군의 떡메치기와 같은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생각해야 한다.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용신마을을 체험거리는 있지만, 먹거리와 살거리가 없다. 태안의 특산물인 꽃게를 이용하여 먹거리를 만들고 팔거리를 개발하여 체험마을과의 연계소득을 꾀하여야 한다.

6) 편의시설

용신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서의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건설된 체험관은 본래 목적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더군다나 비가 올 때면 빗물이 새어 체험객들이 비를 피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체험관 내에 사무실이 설치되지 못하여 현재 사무실은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험관의 정중앙에는 남녀화장실이 설치되어 불쾌감을 주고 있고 있다. 세족장이 없어 갯벌체험 후에 체험객이 손발을 닦을 수도 없고, 샤워장이 없어 여름철 체험객이 땀을 씻을 시설도 되어 있지 못하고, 탈의실이 없어 체험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주도로와 체험장과의 거리가 3km 이상인데 비해, 진입로가 협소하여 버스를 타고 오는 단체관광객이 체험장까지 진입하는 데 지장이 많다. 여름에 띄약벌이 들 때에는 햇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체험객이 일시에 많이 몰릴 때에는 체험객의 불편을 듣고 있다.



용신마을 사무실



용신마을 표시판



용신마을 체험관



용신마을 진입로

7) 어장관리

용신마을은 아직 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조개잡이체험으로 인한 어장 남획, 환경오염 등의 우려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장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름 성수기에 많은 체험객이 일시에 방문할 때에는 쓰레기문제 등 환경오염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장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등을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학생에게 환경보호와 봉사활동을 동시에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청과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3. 태안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1) 마을 개요

대야도어촌계가 속한 안면읍 중장리 대야도 마을은 낮은 구릉성산지와 해안 사영 형성되어 있어 평야가 넓지 못하지만, 자연경관이 좋아 마을주변 구릉지에는 펜션이 많이 들어서 있다. 해안은 인근 작은 섬들로 경관이 아름답고 가두리 유어장이 있어 낚시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간조시가 되면 토끼섬까지 갯벌이 드러나며 단단해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대야도 마을어장에는 전통어법의 하나인 독살과 개막이 등 함정어법으로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고, 마을 앞 토끼섬을 비롯한 섬을 바다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하는 갯벌, 마을어장의 바지락 양식장, 석화양식장, 토끼섬 등의 자연자원과 어촌체험관광자원이 풍부한 마을이다.

해상가두리 낚시체험, 갯바위(섬) 낚시체험, 선착장 낚시체험, 선상낚시체험 등 바다낚시를 체험할 수 있다. 독살체험, 개막이 체험 등의 전통어구어법과 바지락, 가두락, 석화등 조개채취도 체험할 수 있다. 통발, 삽, 맨손을 이용해 낙지를 잡을 수 있고, 게구멍, 조개구멍, 갯지렁이구멍 등 갯벌생물 서식지 맞추기, 갯벌생태관찰, 햇불체험이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2만5천명이 방문하였고, 1만명이 체험시설을 이용하여, 3억8천만원의 체험소득과 7억2천만원의 간접소득을 올렸다.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프로그램 현황〉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대야도항, 천수만 전경
	먹거리	-특산품 : 우럭회, 바지락, 생선회 -기타 : 생선요리
	즐길거리	-갯벌체험(입장료 1인당 미정) -독살체험(1인당 미정) -선상체험(1인당 미정) -선상바다낚시(1인당 미정) -바다낚시체험(1인 1일 미정) -가두리낚시체험(1인 미정)
	주변관광	휴양림, 꽃지해수욕장 등

대야도어촌체험마을의 대야도어촌계는 2008년 기준 54가구, 37어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인구 157명 가운데 어업인구는 114명이다. 계원 43이 전원이 전업어민이다. 1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1천8백만원이다. 15ha에서 마을어업만을 하고 있다. 우럭, 바지락을 생산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5억7천만원의 수산물을 생산하였다.¹⁰⁾

2) 추진방식

대야도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 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일어촌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을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득의 배당은 하지 않고, 그날 순번제에 의해 체험관광 근무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순번제에 의한 유급제를 실시한 이후 참여주민의 열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장이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어촌계와 협력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3) 교육현황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체험마을 해설사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사무장과 체험마을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미약한 형편이다.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선진지견학이나 서비스교육 등이 필요하다.

4) 홍보

대야도마을을 매스컴을 통해 2-3회 소개되었으며, 신문에도 1회 소개되었다. 대야도마을은 2010년 6월부터 <http://daeyado.kr>을 통해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을 홈페이지는 마을커뮤니티의 연락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활동과 체험일정을 소개하고 체험신청을 받고 있다.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마을장터를 통해 바지락, 굴, 소라 등 마을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기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www.seantour.org)의 홈페이지

10) 수협중앙회, 2008년 어촌계분류평정자료.

지와 태안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taeangt.net)를 이용하여 홍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체험마을(www.seantour.org)은 대야도어촌체험마을의 성격과 체험활동을 충분히 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www.seantour.org)은 대야도마을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태안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농어촌체험마을의 홈페이지를 접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어촌체험마을을 독자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못하다.

5) 외부연계체계

대야도마을은 기업(삼성전기)과의 자매결연으로 안정적으로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인 충주 아동사랑방과의 자매결연은 사회복지기관과의 교류라는 점에서 다른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아동사랑방을 통해 충북과 타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추가적인 결연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아동에게 생태교육과 갯벌을 동시에 교육할 수도 있다.

대야도마을은 주변의 숙박업소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갯벌체험이 '물 때 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관광지와와의 연계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은 개발위원회와 함께 인근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등과의 연계구축이 필요하다.

6)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은 당일체험과 숙박체험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당일 프로그램으로는 갯벌체험, 독살체험, 가두리낙시체험, 해루질체험, 선상낙시체험이 있으며, 1박2일 체험으로는 무인도체험프로그램이 있다. 마을의 적은 공간으로 인해 더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의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먹거리와 살거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마을에서는 가두리양식장에서의 낙시체험과 독살체험으로 잡은 물고기를 먹거리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해상낙시터나 장기적으로는 요트계류장을 건설하여 마리나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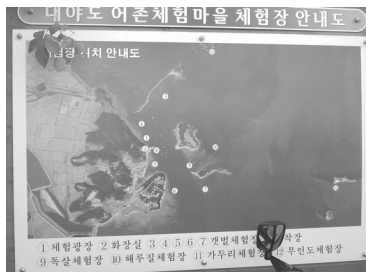
대야도 마을에서는 소규모체험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마을의 갯벌체험과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체험갯벌이 멀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갯벌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7) 편의시설

독살과 가두리낚시, 선상낚시 등을 통해 잡은 물고기를 먹거리로 연계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 마을의 공간이 협소하여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on-line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수산물공판장이나 횃집을 건축할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갯벌 체험 후 체험객을 위한 세족장과 샤워장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8)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어장 10ha를 체험객에게 개방하고 있는 이 마을은 자원고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일시적으로 조개를 채취해도 다른 체험마을과는 달리 자신이 채취한 조개를 집으로 갖고 가지 못한다. 다른 체험마을의 요금(약 7천원)보다 비싼 1만원의 체험료를 받고 있지만, 대야도에서는 일정량만을 집으로 가져가서 곧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미리 잡아 놓은 조개를 진공포장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험객은 집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고 내버리는 조개의 양을 줄이면서, 어장자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4. 태안 영항(영목) 어촌체험마을

1) 마을개요

태안군의 최남단인 고남면 고남리의 남쪽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목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도서경관이 아름답고, 삼 주변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해양생태체험을 위한 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다. 체험활동은 탄달구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체험을 주된 테마로 하며 유람선과 가두리양식장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체험이 가능한 마을이다.

사계절에 걸쳐 바다체험(일출, 일몰감상), 가두리양식어업체험(급이체험 및 양식어류 관찰), 원시어업체험/갯벌체험(독살체험, 조개잡이체험, 갯벌생물 관찰), 유람선타기, 어선체험, 바다낚시, 갯바위 낚시, 가두리양식장 체험, 주변 도서/농어촌탐방, 금광관찰, 해변모래찜질, 해변·해안산책로 등이 가능한 마을이다. 2007년에는 2만5천명이 방문하였고, 1만2천명이 체험시설을 이용하여, 6억의 체험소득과 3억의 간접소득을 올렸다. 주로 가족단위 체험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 마을은 전체 20ha에서 갯벌이 일부에 국한되어 주된 소득원은 어업이며, 체험소득은 많지 않은 편이다. 체험과 부가적 소득과의 연계가 미약하여, 어촌계원은 주로 어업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영항(영목)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프로그램 현황〉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영목항, 해돋이, 해넘이
	먹거리	-특산품 : 꽃게찜, 우럭회 -기타 : 바지락국, 생선요리
	즐길거리	-갯벌체험(입장료 1인당 5원) -모터보트 체험 -유람선관광(1인당 6천원) -선상바다낚시(1인 1일 4만원) -낚시체험(1인 1일 미정)
	주변관광	고남패총 박물관, 휴양림, 꽃지해수욕장
홍 보		-영목항수산물축제 홈페이지(yeongmok.com) -태안군 홈페이지(taeon.go.kr)

영향어촌체험마을의 영향어촌계는 2008년 기준 87가구, 79어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구 271명 가운데 어업인구는 173명이다. 계원 98명이 전원 전업어민이다. 1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5천5백만원이다. 18ha에서 패류양식을 하고 있다. 돌게, 꽃게, 바지락을 생산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43억원의 수산물을 생산하였다.¹¹⁾

2) 추진방식

이 마을은 단일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고 소득은 어촌계원에 전부 배분하고 있다. 모든 어촌계원(89명)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위탁경영을 하고 않고, 어촌계원에서 소개하여 필요시 어촌계원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목항에서 사업하는 어촌계원의 업종이 다양해서 어촌계원과 체험마을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마을의 모든 사업은 어촌계 총회를 통해 승인되고 있다. 이 마을은 충남의 어촌체험마을 가운데 유일하게 자율관리공동체로도 운영하고 있다.

3) 교육현황

한국어촌어합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매년 2회 참여하고 있으며,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선진지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다른 어촌마을에 비해 활발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무장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전임사무장이 근무하고 있으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마을홈페이지를 관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4) 홍보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어촌체험마을(www.seantour.org)의 홈페이지와 태안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taeangt.net)를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영목마을의 자체 홈

11) 수협중앙회, 2008년 어촌계분류평정자료.

페이지가 구축되었지만 지금은 폐지된 상태이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여 주로 전화를 통해 체험예약을 받고 있고, 자체 팸플렛 등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5) 외부연계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은 미약한 편이다. 주변의 펜션과 연계하여 독살체험과 선물판매 등을 운영 중이나, 지역의 교육청, 관공서 등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험객과의 연계는 구축되고 있다. 개인, 9개 회사로 구성된 단체 등 2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2009년 공주대 중국 유학생들이 독살체험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을 계기로, 충남의 학교 뿐만 아니라 타 시도 학교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체험활동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 대산항이 중국과의 무역항으로 개발되는 것을 계기로 천연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안면도를 찾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광단체와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마을은 정보화마을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정보화마을과 어촌체험마을과의 통합운영으로 on-line 홍보와 전자상거래를 강화할 예정이다.

6)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갯벌체험, 독살, 맨손물고기잡이, 선상낚시, 유람선관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협소한 갯벌을 활용하기 보다는 가두리낚시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갯벌체험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사시사철 체험이 가능하다.

7) 편의시설

체험을 위한 세족장과 화장실 등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사유지가 많아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부지가 협소하여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어, 현재 매립중인 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

구된다. 현재 임시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0년 태풍으로 인해 판매장이 바람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어 수산물판매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향후 77번 국도에 연륙교가 건설되면 더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므로 판매장 등의 시설확충이 요구된다.

8)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어촌계가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갯벌체험활동이 미약하므로,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에 대한 비중이 낮다.

5. 서천 송석 어촌체험마을

1) 마을개요

송석마을은 갈목눈들, 동지산, 송내, 새밀 등 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수는 300여호, 인구수는 900여명이다. 겨울에는 김양식을 하며,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선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석마을을 읍내에 인접해 있어 조깅코스로 좋으며, 매년 체험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계절에 걸쳐 조개잡이, 맛잡이, 칠게잡이, 망둥어낚시를 체험할 수 있으며, 봄/여름/가을에는 어선체험을, 겨울에는 김채취를 체험할 수 있다. 2007년에는 3만8천명이 방문하여 3만4천명이 체험시설을 이용하여, 1억9천만원의 체험소득¹²⁾과 2천7백만원의 간접소득¹³⁾을 올렸다.

〈송석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프로그램 현황〉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갯벌, 모래 해변, 김 채취·제도, 어선출어, 자연경관 등
	먹거리	특산품 : 김, 굴, 주꾸미, 대하 기타 : 꽃게탕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즐길거리	-갯벌체험, 조석체험(입장료 없음) -바다낚시(적당 임대료/1일 약 20만원) -조개잡이 체험(1인 3천원) -모래찜질, 해수욕 등
	주변관광	마량동백나무숲,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한산모시관, 신성리 갈대밭, 춘장대해수욕장, 희리산휴양림, 해양박물관
홍 보		-서천군청 홈페이지(www.seocheon.go.kr) -서천군 관광 홍보물

송석 어촌체험마을의 송석리어촌계는 2008년 기준 97가구, 83어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인구 249명 가운데 어업인구는 166명이다. 계원 131명 가운데 전업어민이 59명이며 겸업어민이 54%인 72명이다.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12) 체험소득은 낚시, 갯벌, 입장료 등 체험시설이용료임

13) 간접소득은 개인별 식사, 숙박, 특산물판매 등의 기타소득임

1천1백만원이다. 212ha에 해조류양식을 하고 있으며, 107ha에서 마을어업을 하고 있다. 김, 주꾸미, 바지락, 가무락, 동죽을 생산하여, 2008년 기준 28억7천9백만원의 수산물 생산하였다.¹⁴⁾

2) 추진방식

이 마을은 5개 부락이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개 부락의 어촌계원은 어촌체험마을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락의 어촌계원은 참여하지 않아서 소득배당을 둘러싸고 갈등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혁신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 계원이 부족하여 체험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5개 부락의 마을을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교육현황

체험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다는 생각에 교육참여가 없는 형편이다.

4) 외부연계체계

향후 체험마을이 다시 시작되면 서천에 개원될 국립생태원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5) 체험프로그램

과거에는 갯벌체험장으로 많은 체험객이 방문하였지만, 남획으로 인해 패류가 고갈되어 2007년부터 무료입어가 허용되어 있다.

6) 편의시설

2002년 건축된 세족장, 샤워시설이 있다. 어항에 식당이 있으나, 조립식으로 건축되어 정비가 요구된다.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14) 수협중앙회, 2008년 어촌계분류평정자료.

6. 서천 월하성 어촌체험마을

1) 마을개요

월호리마을은 월하성과 호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하성이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양이 달을 닮았다하여 달 아래 성 즉 월하성(月下城)이라고 부른다. 또한 달빛 아래 신선이 노는 것 같은 마을이라고 하여 신성지로 꼽히던 마을이다. 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꾸미 샤브샤브와 전어회가 이름나 있다.

사계절에 걸쳐 조개잡이, 맛잡이, 칠게잡이, 망둥어낚시를 체험할 수 있으며, 봄/여름/가을에는 어선체험을, 겨울에는 김채취를 체험할 수 있다. 2007년에는 3만9천명이 방문하였으며, 3만8천명이 체험시설을 이용하였다. 체험소득은 2억3천만원이었으며, 간접소득은 1억8천만원이었다.

〈월하성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프로그램 현황〉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갯벌, 김 채취·제조, 어선출어, 풍어제, 자연경관
	먹거리	특산품 : 주꾸미, 전어, 대하 기타 : 넙치회
	즐길거리	-갯벌체험, 조석체험(입장료 없음) -바다낚시(척당 임대료/1일 약 20만원) -조개잡이 체험(1인 3천원) -야간횃불, 골뱅이 채취체험(1인 1야당 3-5만원)
	주변관광	마량동백나무숲,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한산모시관, 신성리 갈대밭, 춘장대해수욕장, 희리산휴양림, 해양박물관
홍 보		-월하성 어촌체험마을(walhasung,seantour.org) -서천군청 홈페이지(www.seocheon.go.kr) -서천군 관광 홍보물

월하성 어촌체험마을의 월하성어촌계는 2008년 기준 51가구, 37어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인구 150명 가운데 어업인구는 79명이다. 계원 51명 가운데 전업어민이 32명

이며 겸업어민이 19명이다. 1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3천6백만원이다. 26ha에서 패류양식을 하고 있으며, 68ha에서 마을어업을 하고 있다. 김, 대하, 꽃게를 생산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35억원의 수산물을 생산하였다.¹⁵⁾

2) 추진방식

1개 마을의 어촌계로 구성되어 체험마을을 추진하는 데에 갈등이 없으며, 2010년 현재 51명의 어촌계원 전원이 참석하고 있다. 소득배당은 순번제로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탁경영을 하지 않고 어촌계가 직영하고 있다.

3) 교육현황

사무장과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매년 1-2회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4) 홍보

한국 어촌어항협회의 walhasung.seantour.org와 www.westsea.net, 서천군청 홈페이지(www.seocheon.go.kr)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 아직 마을의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나, 향후 구축할 예정이다. 독자적을 팜플렛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5) 외부연계체계

서천군에서는 월하성마을 활성화를 위해 교육관건축에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마을은 서울시 연수원, 서울시 공무원 노조, 한전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직원들의 체험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내에서는 한산모시관광 상호 홍보 및 판매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내 희리산과도 연계관광을 구상 중에 있다.

향후 서천군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과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적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 수협중앙회, 2008년 어촌계분류평정자료.

6) 체험프로그램

현재에는 주로 갯벌체험(맛조개, 바지락, 소금맛잡이)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현재의 어촌체험관을 향후 교육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서천군의 갯벌 패류가 점차 고갈됨에 따라 월하성마을에서는 어촌체험관 2층을 생태실험관으로 고쳐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생태해설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태교육과 갯벌체험, 그리고 체험 후 시식으로 이어지는 일관 서비스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깨끗한 먹거리시설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서천군에서는 교육관 건축에 3억원을 지원하였다.

향후 현재의 단순한 체험관광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소득창출을 위해 도자기체험을 구상중에 있으며, 지역 특산물인 조미김과 자하젓갈 등을 생산·판매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갯벌체험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7) 편의시설

월하성마을의 갯벌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늘시설과 샤워시설, 세족장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갯벌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시식시설을 확충하여 체험-시식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8)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월하성마을 뿐만 아니라 서천군 지역의 갯벌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장관리를 위한 적정수준의 체험관광객의 수와 어장환경조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서천 당정리 어촌체험마을

1) 마을개요

옛날부터 당정2리에는 오당(五堂)이라는 명칭이 있다. 오당이란 사당호, 당산재, 지당, 서낭당, 아래당을 말하며 뚜드렁이에서 북쪽으로 한티라는 절터가 있는데, 이곳에 올라가서 이 마을을 쳐다보면 왼쪽으로 갈목과 오른쪽으로 다사리가 보이고 가운데 볼록하게 나온 곳이 노리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내 북종의 종채 끝 지당을 붙들고 뚜드려야 부내북종에 북이 온다하여 뚜드렁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옛날에는 신당이 있어서 곳을 하느라고 날마다 뚜드려거렸다고 한다. 북종의 대지가 있는데, 북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며 당정리의 으뜸이 되는 마을이다.

사계절에 걸쳐 조개잡이, 맛잡이, 칠게잡이, 망둥어낚시를 체험할 수 있으며, 봄/여름/가을에는 어선체험을, 겨울에는 김채취를 체험할 수 있다. 2007년에는 6천명이 방문하였고, 4천명이 체험시설을 이용하여, 3천4백만원의 체험소득과 2백만원의 간접소득을 거두었다. 2009년에는 체험소득으로 회원당 130만원의 순소득을 얻었다. 2009년까지는 체험소득이 있었으나, 이후 체험소득이 급감하여 현재에는 어업소득이 대부분이다.

〈당정리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프로그램 현황〉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갯벌, 김 채취·제조, 어선출어, 자연경관
	먹거리	특산품 : 주꾸미, 대하, 꽃게
	즐길거리	-갯벌 체험, 조석 체험(입장료 없음) -바다낚시(척당 임대료/1일 약 20만원) -조개잡이 체험(1인 3천원)
	주변관광	마량동백나무숲,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한산모시관, 신성리 갈대밭, 춘장대해수욕장, 회리산휴양림, 해양박물관

2) 추진방식

이 마을은 비인어촌계소속인데, 어촌계가 아닌 가무락회원이 운영하고 있다. 약 70호로 이루어진 부락으로 이장이 주도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체험관광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지형적 여건이기 때문에, 체험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체험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체험마을을 관리할 사무장도 없는 실정으로, 주로 조용한 삶을 영위하려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램을 갖고 있는 마을이다. 체험객에게 식사를 위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주민과 방문객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마을이다.

3) 교육현황

마을의 구성원이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4) 홍보

한국 어촌어항협회(www.seantour.org)를 통해 홍보되고 있으나, 이조차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5) 외부연계체계

외부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철새전시관과의 연계를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6) 체험프로그램

원래 갯벌체험이 주된 체험자원이지만, 현재 동죽 등 체험자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원남획에 의한 자원고갈이 아닌, 연안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원감소이기 때문에 마을로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 철새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해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갯벌체험이외에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민박과 외지인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7) 편의시설

18년의 노력으로 세족장, 화장실, 샤워장이 갖추어진 어촌체험관을 건립하였다. 마을의 지형적 특성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체험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편의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 모색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

체험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뿔이 점차 더 많이 쌓여서 체험장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유어장을 조성하여 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8. 개선과제

충남 어촌체험마을은 마을별로 그 추진방식, 지형적 여건, 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어촌체험마을은 기본적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속성상 폐쇄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의 구성에 따라 그 운영·추진방식에 다르게 나타난다. 단일 어촌계에 의해 운영되는 어촌체험마을 일수록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어촌계를 구성하는 부락의 수가 적을수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기본배경은 소득배당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어촌계원과 참여하지 않는 어촌계원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곳도 있다.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운영방식에서는 어촌계가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을 주는 방식이 있다.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대부분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체험마을주민은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환경의 변화로 주소득원으로서의 어업활동도 점차 힘들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마을에서는 체험관광이 그 마을의 향후 나아갈 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반농반어의 주민도 고령화와 시장개방으로 체험관광소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주민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전무하여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무장에 대한 교육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PC 및 홈페이지관리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마을주민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및 선진지견학이 필요하며, 사무장 및 어촌계장 등 마을리더에 대한 전문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에는 체험관광에서의 재미 뿐만 아니라 생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태해설사교육도 필요하다. 주민들의 생태해설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홍보활동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모든 어촌체험마을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되고 있지만,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체험마을은 대야

도마을 밖에 없다. 이외에 자체 팜플렛을 제작하는 곳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농어촌체험관광이 링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몇 단계를 거쳐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user의 입장에서 이용상의 불편한 점이 있다. 홍보활동으로 마을주민들은 입소문에 의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외부연계체계로는 해당 지자체가 관심을 부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유치한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체험관건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체험마을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도 마을주민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부연계체계로는 자매결연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업, 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체험객 유치에 중요한 부분이다. 충남의 어촌체험객은 경상도, 수도권, 충북에서도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의 지자체와의 조직적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체험관광객이 주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적 연계를 통해 기관단위의 체험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미약하였다. 지역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서해안의 갯벌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것도 체험활동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조개채취는 성패를 뿌리지 않으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개자원이 감소되었으며, 독살체험도 양식 물고기를 넣지 않으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정도 어족자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서천군 지역의 체험마을은 거의 조개체험에 의존하고 있다. 불과 34년 전만해도 많은 패류를 채취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연안환경의 변화와 자원남획으로 체험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어장환경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어장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마을주민들도 어장환경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체험자원의 점차적 고갈을 체험프로그램의 재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서해안 어촌체험의 주된 메뉴는 갯벌체험이다.

그러나 갯벌체험을 어촌체험마을만의 고유한 체험프로그램이 아니다.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에서도 갯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갯벌체험은 “물 때 체험”이기 때문에 갯벌 이외에 육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재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은 상호 경쟁성이 높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체험활동과의 연계소득이 미약하다. 체험관광객은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등을 요구한다. 체험마을은 주변 펜션과의 협력체계는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 연계소득을 창출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편의시설은 많이 확충되고 있다. 대부분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개조되었으나, 아직 갯벌 체험 이후 체험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세족장, 샤워장등의 시설은 부족하다. 특히 갯벌체험지역에서는 더운 날씨에 쉴 수 있는 그늘공간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홍보를 위한 교통표지판도 미비하다. 대부분의 어촌체험마을은 좁은 길을 통과하여 해안마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체험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교통표지판이 요구된다.

제6장 지역주민 및 체험객 대상 설문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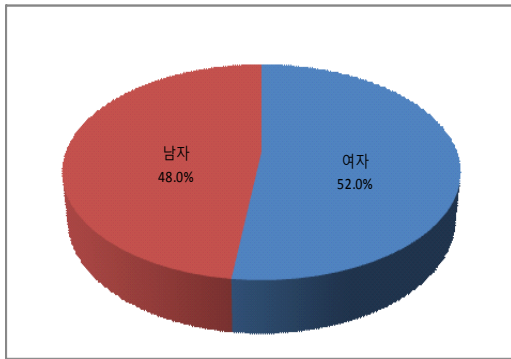
1.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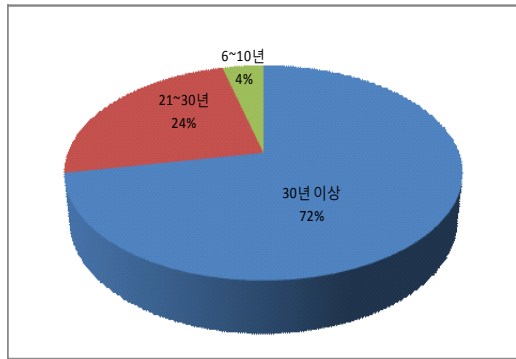
본 조사는 충청남도 어촌체험마을 관광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어촌체험마을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은 현재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충청남도 월하성어촌체험마을주민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6일부터 2010년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과 다중응답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총 25명으로 남성 48.0%, 여성 52.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0.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6.0%, 60세 이상 4.0%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30년 이상거주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1~30년이 24.0%, 6~10년이 4.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어업형태는 연안어업 46.2%, 근해어업 15.4%로 나타나 허가어업 위주로 어업을 하고 있으며, 면허어업으로서 마을어업 12.8%, 어업정치망 10.3%, 양식어업 9.7% 순으로 나타났고, 신고어업으로서는 구획어업 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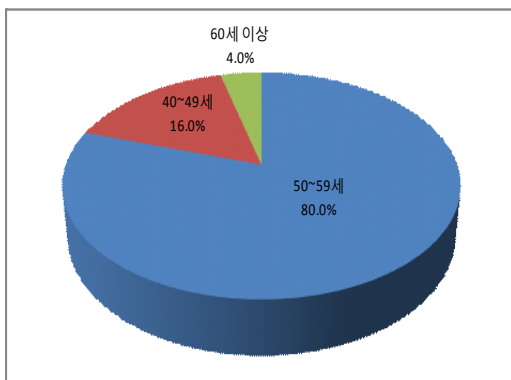
16) 본 설문은 한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어촌체험마을의 모든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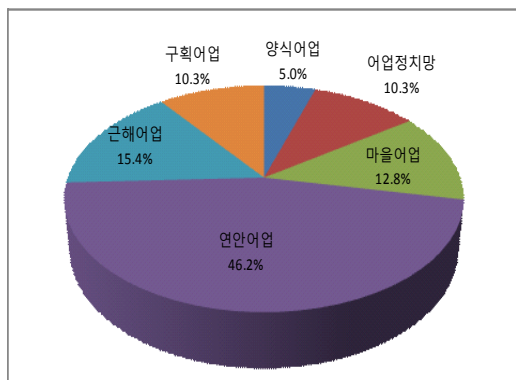
설문대상자 성별



설문대상자의 거주기간



설문대상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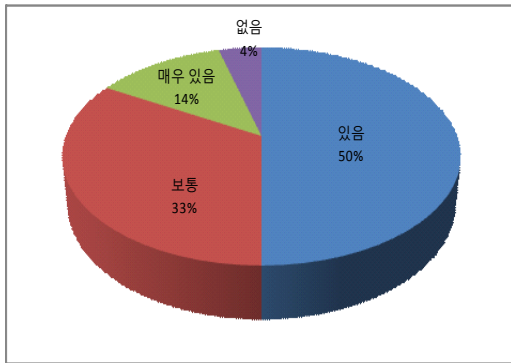


설문대상자 어업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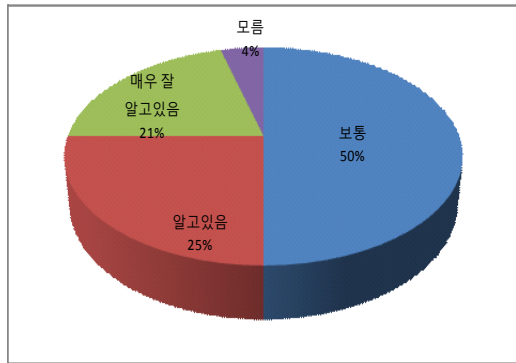
2) 조사결과

(1) 어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일반적 설문분석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관심있음'이 50.0%, '매우 있음'이 12.5%로 지역주민의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 50%, '알고 있음'이 25%, '매우 잘 알고있음'이 20.8%로 인지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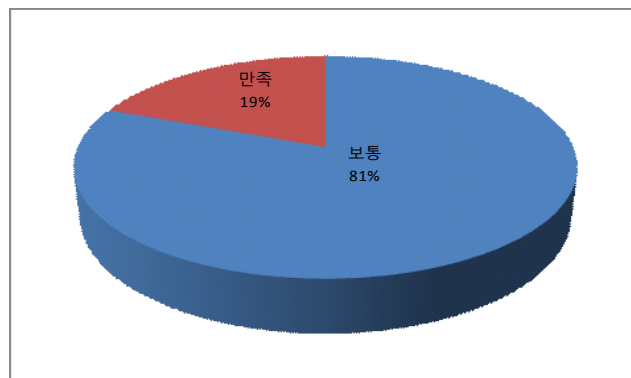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관심정도



어촌체험마을 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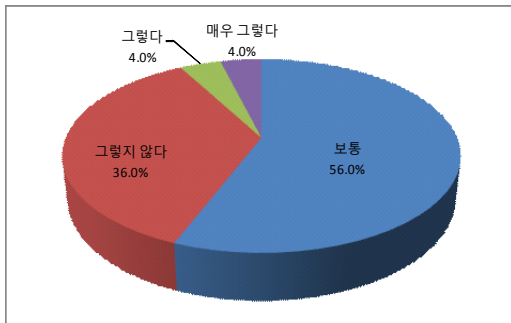
한편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보통이다' 81.0%, '만족한다' 19.0% 순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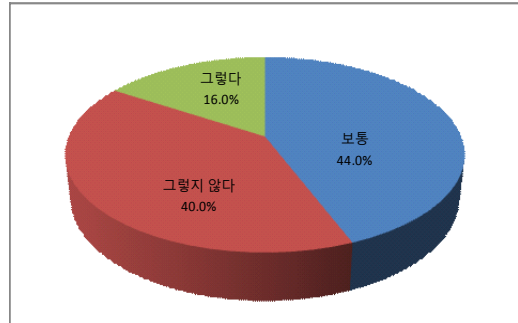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사업 만족도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필요한 체험사업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56.0%, '그렇지 않다' 36.0%, '그렇다' 4.0%, '매우 그렇다' 4.0%로 나타나 체험사업에 대한 교육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44.0%, '그렇지 않다' 40.0%, '그렇다' 16.0% 순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또한 미흡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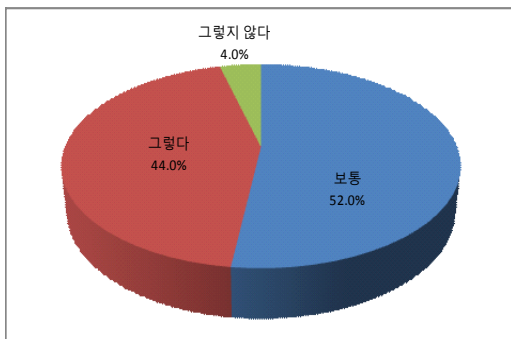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교육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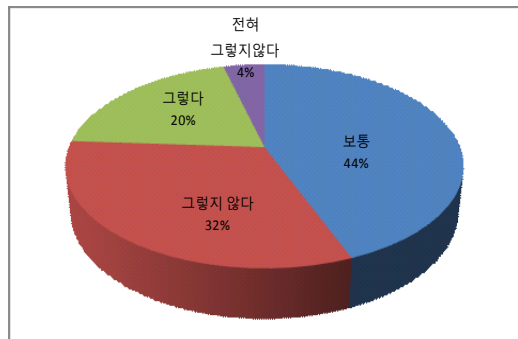
체험마을사업의 정부지원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홍보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52.0%, '그렇다' 44.0%, '그렇지 않다' 4.0%로 홍보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44.0%, '그렇지 않다' 32.0%, '그렇다' 20.0%, '전혀 그렇지 않다' 4.0% 순으로 나타나 주변지역과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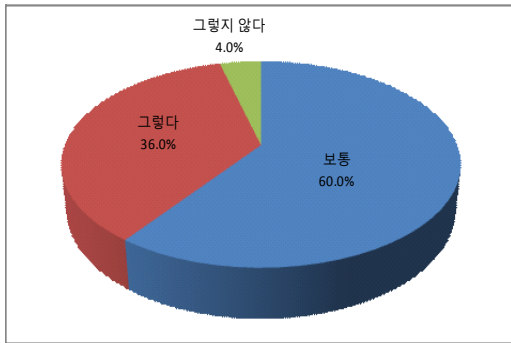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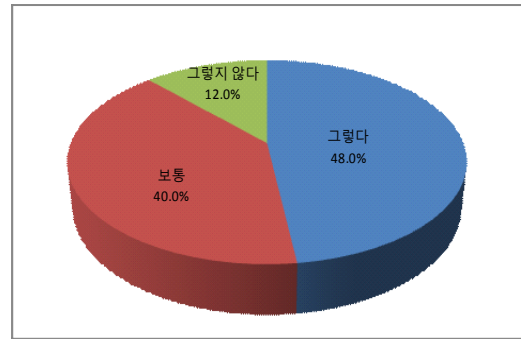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주변지역과의 연계

어촌체험관광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낙후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60.0%, '그렇다' 36.0%, '그렇지 않다' 4.0% 순으로 나타나 시설의 낙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어촌체험관광사업에 필요한 운영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48.0%, '보통이다' 40.0%, '그렇지 않다' 12.0% 순으로 나타나 운영인력 부족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낙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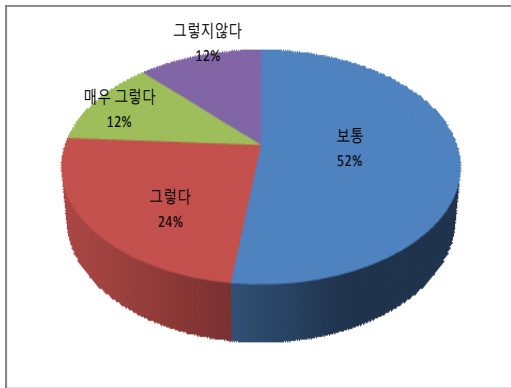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사업에 필요한 운영인력 부족

(2) 어촌체험관광의 결과에 대한 설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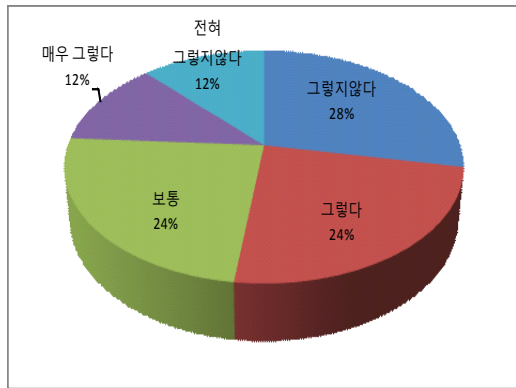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의 결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공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긍정적 측면과 어업활동 지장초래, 환경오염, 지역 혼잡증가, 지역주민갈등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은 '보통'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된다' 24.0%, '매우 도움이 된다' 12.0%,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0% 순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다'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24.0%, '보통이다' 24.0%, '매우 그렇다' 12.0%, '전혀 그렇지 않다' 12.0% 순으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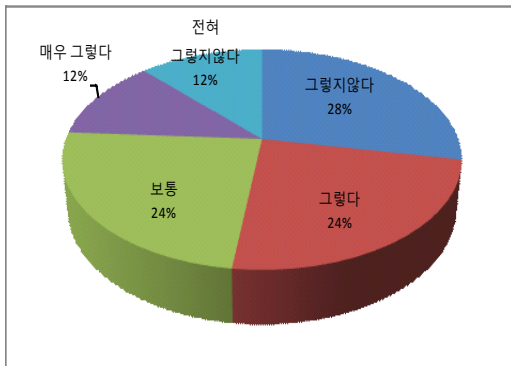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의 소득증대에 기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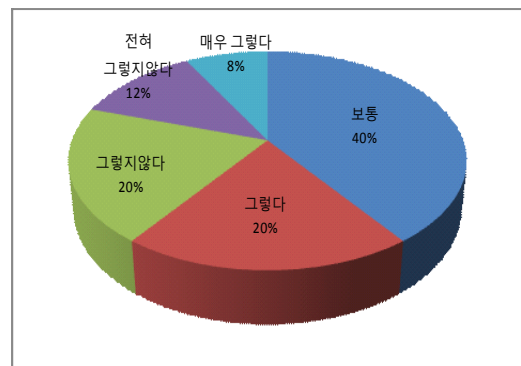


방문객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어촌체험관광 사업으로 인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다'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24.0%, '그렇다' 20.0%, 전혀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다' 4.0% 순으로 나타나 어촌체험관광 사업이 해당 지역의 SOC사업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어촌관광사업으로 인해 어느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보통이다' 40%, '그렇다' 20.0%, '그렇지 않다' 20.0%, '전혀 그렇지 않다' 12.0%, '매우 그렇다' 8.0% 순으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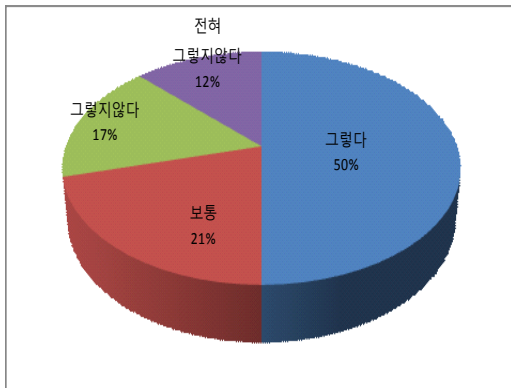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으로 인한 공공기반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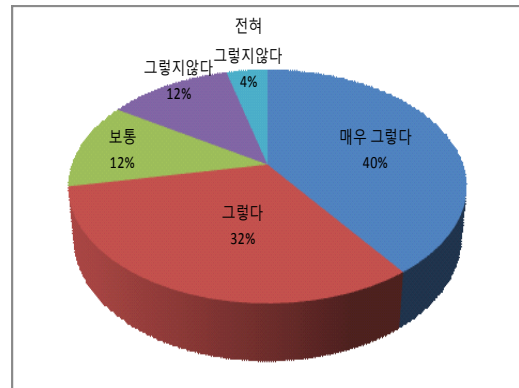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한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설문으로, 어촌체험관광으로 인해 어업활동 지장이 되

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50.0%, '보통이다' 20.8%, '그렇지 않다' 16.7%, '전혀 그렇지 않다' 12.5% 순으로 나타나 어업활동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쓰레기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40.0%, '그렇다' 32.0%,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12.0% 로 나타나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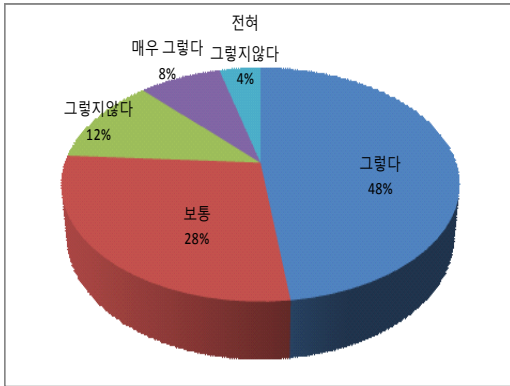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으로 인한 어업활동 지장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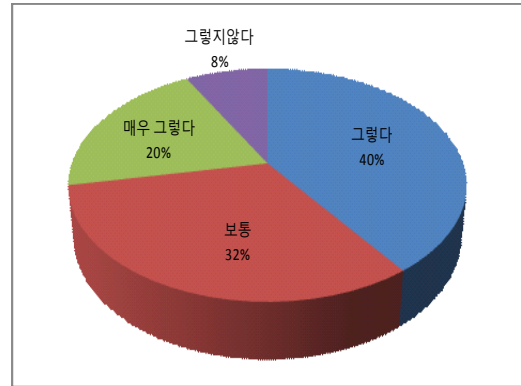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발생

관광객 과밀로 인한 지역혼잡 증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 28.0%, '그렇지 않다' 12.0%, '매우 그렇다' 8.0%, '전혀 그렇지 않다' 4.0% 순으로 나타나 지역혼잡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관광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갈등 유발에 관한 의견은 '그렇다' 40.0%, '보통이다' 32.0%, '매우 그렇다' 20.0%, '그렇지 않다' 8.0% 순으로 나타나 지역주민간 갈등 또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 과밀화로 인한 지역혼잡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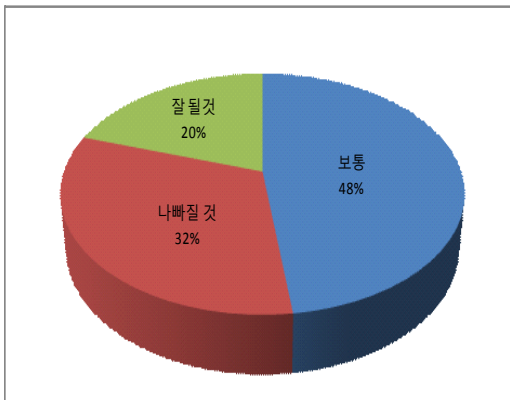


어촌체험관광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갈등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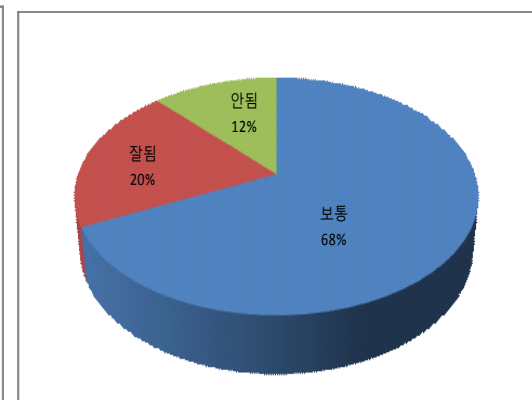
(3)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전망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분석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전망에 대한 의견은 '보통이다' 48.0%, '나빠질 것이다' 32.0%, '잘 될 것이다' 20.0%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마을 사업에서 체험프로그램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보통이다' 68.8%, '잘됨' 20.0%, '안됨' 12.0% 순으로 나타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이지만 다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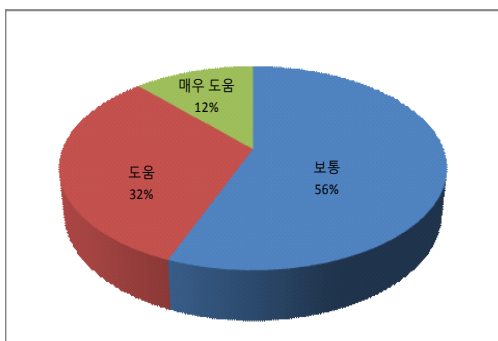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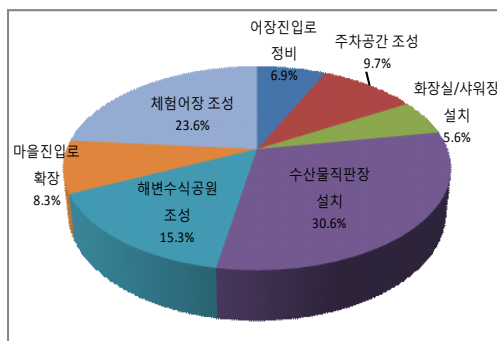
어촌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컨설팅 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이다' 56.0%, '도움이 된다' 32.0%, '매우 도움이 된다' 12.0%로 컨설팅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수산물직판장 설치' 30.6%, '체험어장조성' 23.6%, '해변수식공원 조성' 15.3%, '주차공간 조성' 9.7%, '마을진입로 확장' 8.3%, '어장진입로 정비' 6.9%, '화장실/샤워장 설치' 5.6% 순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에 도움이 되는 체험관광사업과 체험시설 확충 및 마을 SOC에 대한 사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어촌체험관광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의견



어촌체험관광의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어촌소득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우선순위 형태로 질문한 결과, ①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리더, ②주민단결 및 협조, ③행정기관 협조 및 지도, ④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 ⑤편의시설 설치, ⑥어촌주민의 관광서비스 교육 및 연수, ⑦민박여건 개선 순으로 응답하였다.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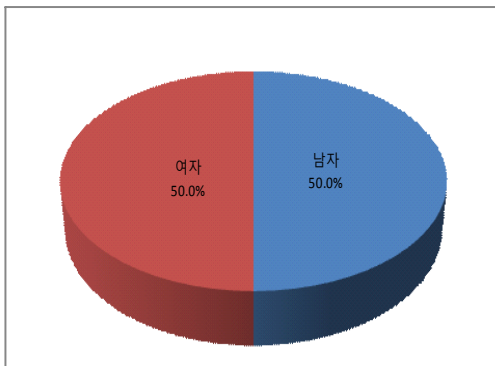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의 우수한 리더	25	1	4	1.48	0.82
주민단결 및 협력	25	1	5	2.72	1.43
행정기관협조 및 지도	25	1	6	2.96	1.40
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	25	2	7	4.40	1.19
편의시설설치	25	2	7	5.08	1.29
주민교육및연수	25	3	7	5.16	1.40
민박여건개선	25	3	7	6.20	1.47

2. 체험객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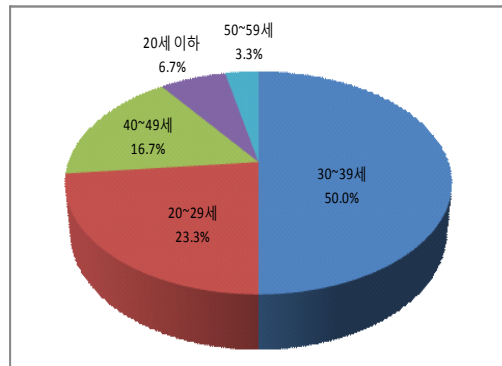
1) 조사설계

본 조사는 충청남도 어촌체험마을 관광실태와 관련하여 실제 수요자인 방문객이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관광한 방문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은 충남지역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관광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6일부터 2010년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30명으로 남성 50.0%, 여성 50.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3.3%, 40대 16.7%, 20세 이하 6.7%, 50대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유형은 직장인 56.7%로 가장 많았고, 주부 23.3%, 학생 20.0%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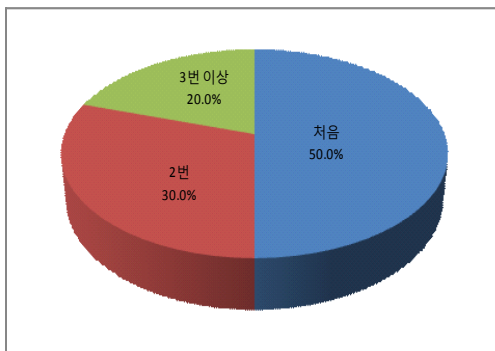


설문대상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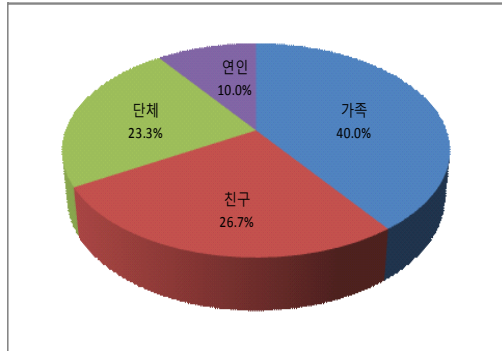
2) 조사결과

(1) 어촌체험 호응도에 대한 설문분석

충남 어촌체험마을 방문 횟수에 대한 질문은 '처음' 50%, '2회' 30%, '3회 이상' 20% 순으로 나타났고, 함께 온 동반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족' 40%, '친구' 26.7%, '단체' 23.3%, '연인' 1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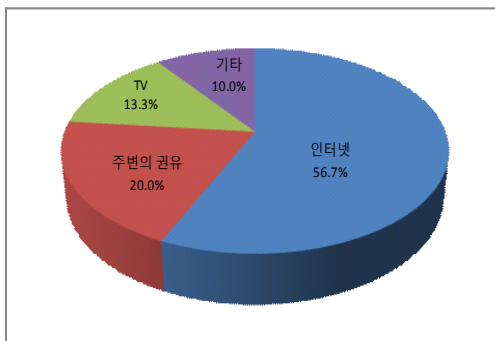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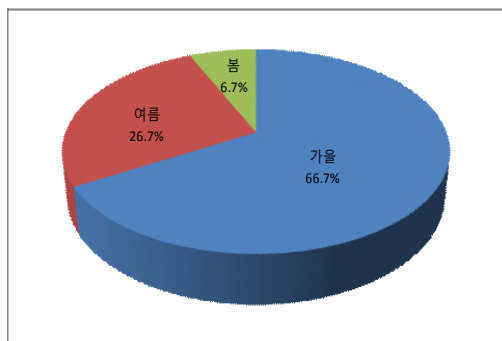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동반인

어촌 체험마을 방문 전에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인터넷 매체' 56.7%, '주변의 권유' 20.0%, 'TV매체' 10.0%, '기타' 10.0% 순으로 응답하였고, 어촌 체험을 위해 적합한 계절은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가을' 66.7%, '여름' 26.7%, '봄' 6.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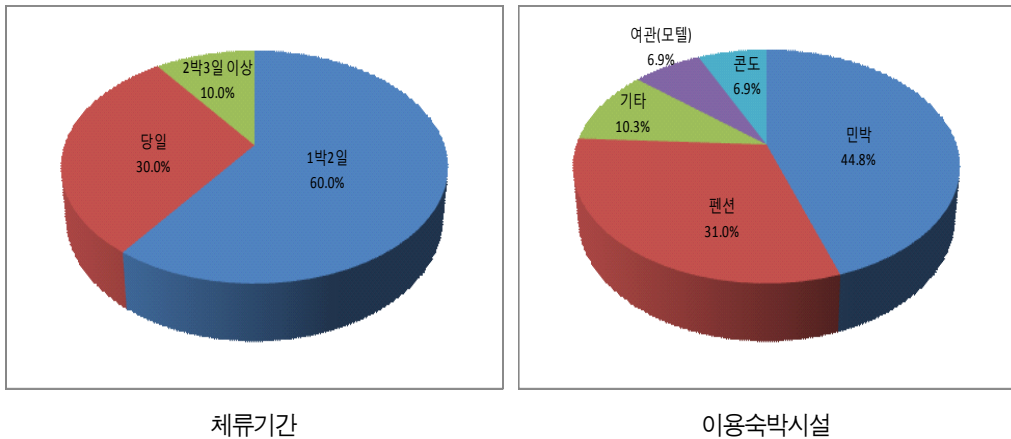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정보인지 경로



어촌체험 적합한 계절

어촌체험 방문시 평균 체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1박2일'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당일' 30.0%, '2박3일' 10%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체류를 위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질문에서 '민박'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펜션' 31.0%, '기타' 10.3%, '여관(모텔)' 6.9%, '콘도' 6.9%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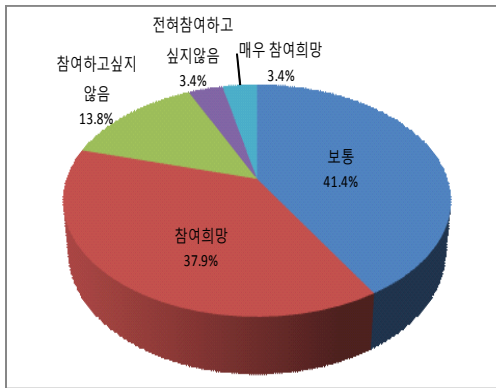


(2) 어촌체험 프로그램 만족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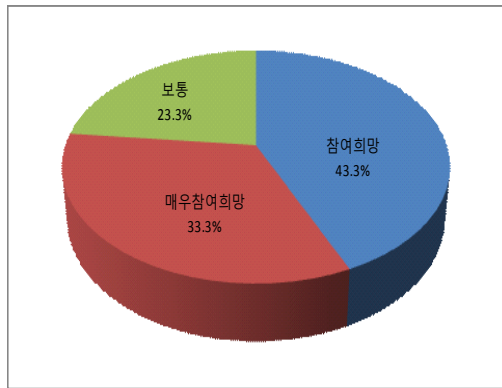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만족 및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및 느낀 점과 불편사항 등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향토음식체험 참여의향은 '보통이다'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여하고 싶다' 37.9%, '참여하고 싶지 않다' 13.8%,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3.4%, '매우 참여하고 싶다' 3.4% 순으로 나타났다.

갯벌체험 참여의향은 '참여하고 싶다' 43.3%, '매우 참여하고 싶다' 33.3%, '보통이다' 23.3% 순으로 나타나 갯벌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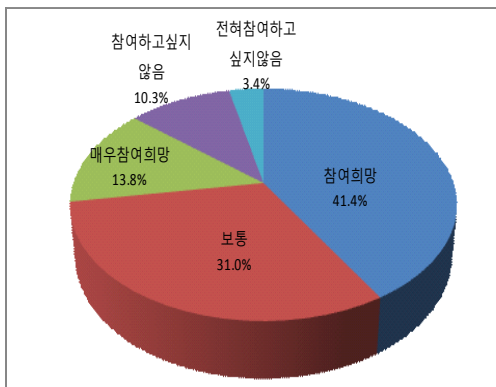


향토음식체험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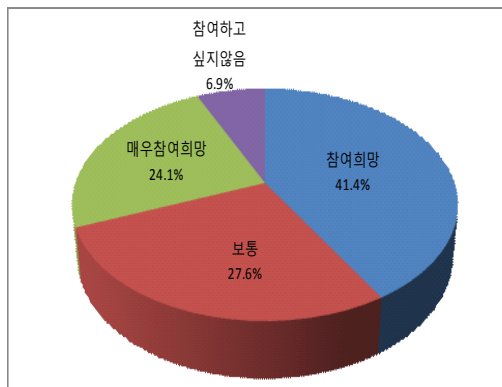


갯벌체험 참여의향

전통어법체험 참여의향은 ‘참여하고 싶다’ 41.4%, ‘보통이다’ 31.0%, ‘매우 참여하고 싶다’ 13.8%, ‘참여하고 싶지 않다’ 10.3%, ‘전혀 참여하고싶지 않다’ 3.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일출일몰감상 참여의향은 ‘참여하고 싶다’ 41.4%, ‘보통이다’ 27.6%, ‘매우 참여하고 싶다’ 24.1%, ‘참여하고 싶지 않다’ 6.9%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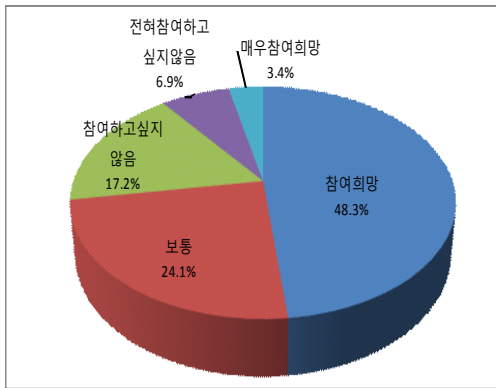


전통어법체험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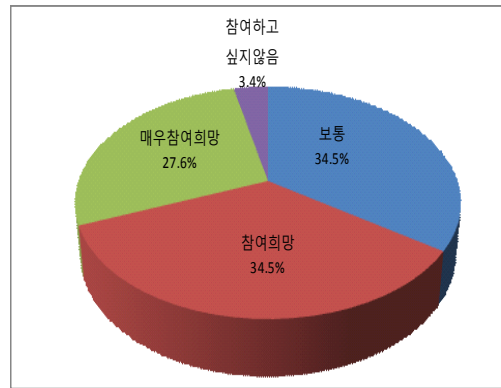


일출일몰감상 의향

역사문화유적관람 의향은 ‘참여하고 싶다’ 48.3%, ‘보통이다’ 24.1%, ‘참여하고 싶지 않다’ 17.2%,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6.9%, ‘매우 참여하고 싶다’ 3.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바다낚시 참여의향은 ‘보통이다’ 34.5%, ‘참여하고 싶다’ 34.5%, ‘매우 참여하고 싶다’ 27.6%, ‘참여하고 싶지 않다’ 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역사문화유적관람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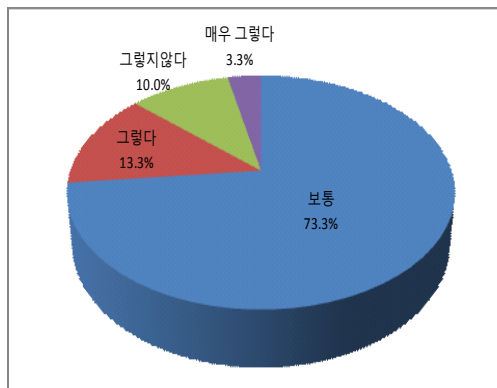


바다낚시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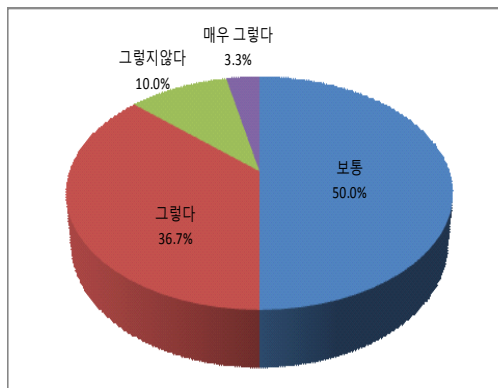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관광에 대해 느낀점을 프로그램 다양성, 흥미성, 교육적 가치 등으로 설문하였다.

우선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보통이다'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13.3%, '그렇지 않다' 10.0%, '매우 그렇다' 3.3% 순으로 응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함이 조사되었다.

체험프로그램이 재미있는가에 대한 흥미성은 '보통이다' 50.0%, '그렇다' 36.7%, '그렇지 않다' 10.0%, '매우 그렇다' 3.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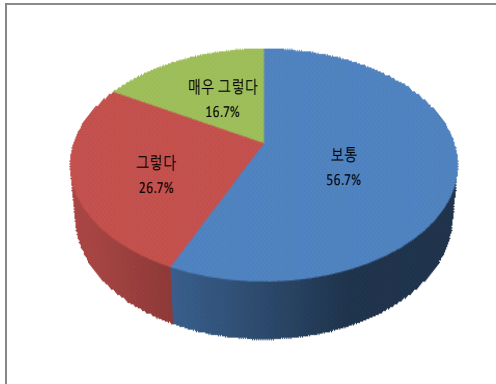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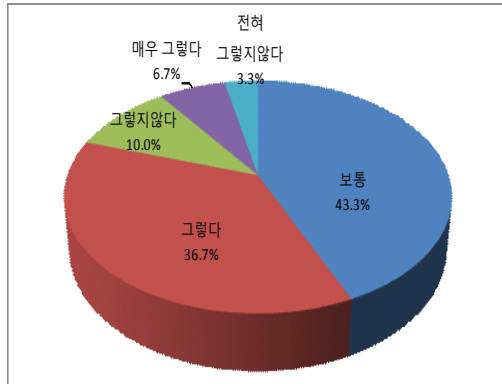


체험프로그램의 흥미성

어촌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56.7%, '그렇다' 26.7%, '그렇지 않다' 16.7% 순으로 나타났고, 숙박시설이 충분하고 쾌적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43.3%, '그렇다' 36.7%, '그렇지 않다' 10.0%, '매우 그렇다' 6.7%, '전혀 그렇지 않다' 3.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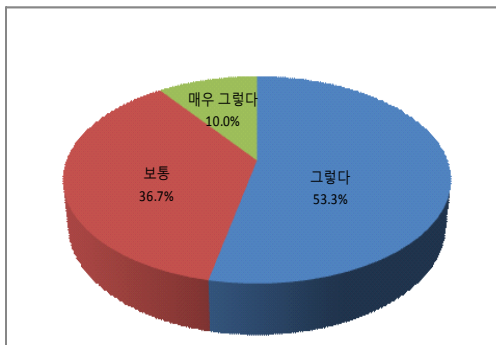
어촌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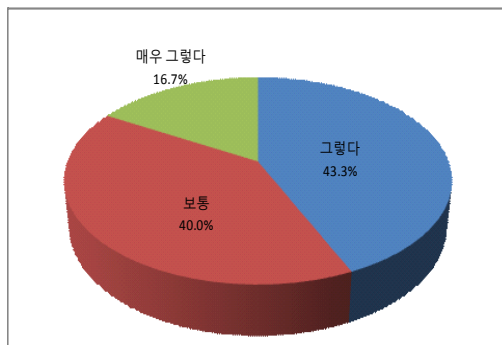
숙박시설의 충분성 및 쾌적성

주차시설이 편리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36.7%, '매우 그렇다' 10.0% 순으로 나타나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변시설(화장실 등) 정비가 잘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 43.3%, '보통이다' 40.0%, '매우 그렇다' 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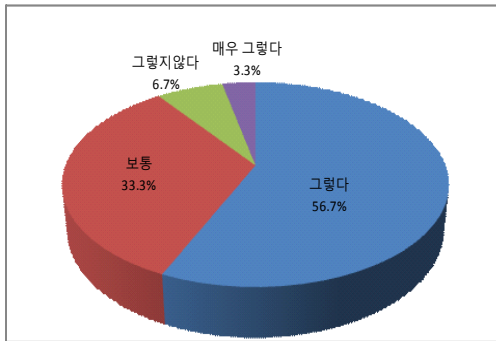
주차시설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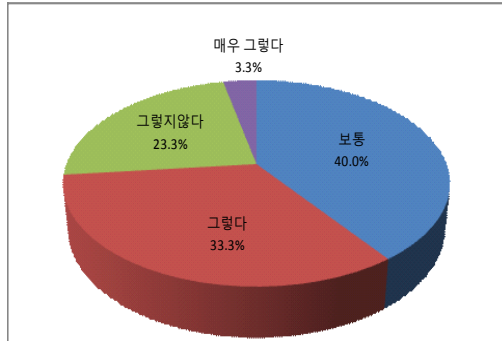
주변시설 정비

어촌체험마을 찾아오는 길이 쉽고 편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 56.7%, '보통이다' 33.3%, '그렇지 않다' 6.7%, '매우 그렇다' 3.3% 순으로 나타나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접근성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을 제외하고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40.0%, '그렇다' 33.3%, '그렇지 않다' 23.3%, '매우 그렇다' 3.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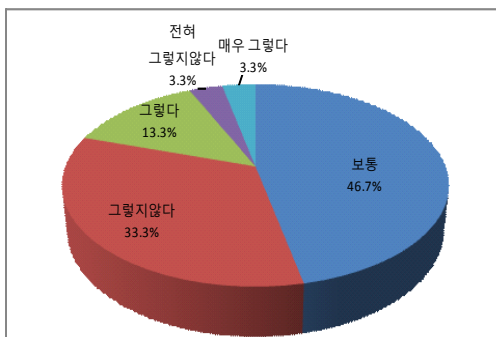
어촌체험마을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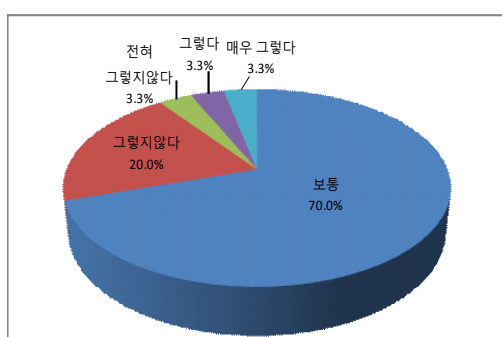
주변 관광지 유무

지역 기념품이나 특산품이 다양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46.7%, '그렇지 않다' 33.3%, '그렇다' 13.3%, '전혀 그렇지 않다' 3.3%, '매우 그렇다' 3.3% 순으로 나타나 지역 특색을 살린 기념품 및 특산품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마을이 속한 지역의 향토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20.0% 순으로 나타나 향토음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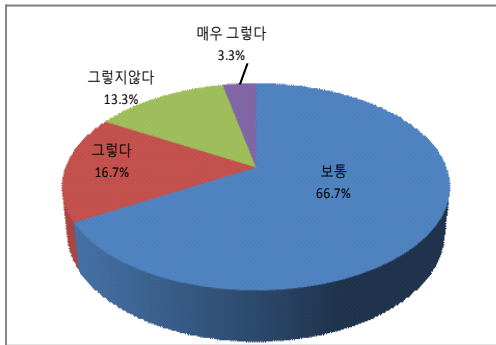


지역기념품/특산품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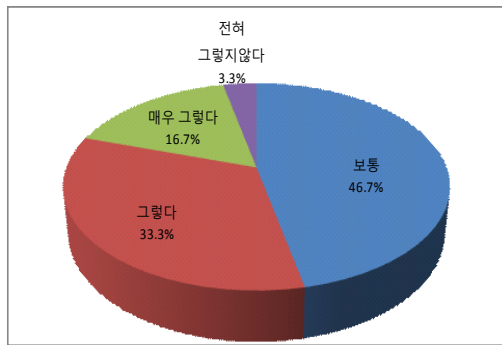


향토음식의 다양성 및 맛

음식가격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66.7%, ‘그렇다’ 16.7%, ‘그렇지 않다’ 13.3%, ‘매우 그렇다’ 3.3% 순으로 응답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친절성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46.7%, ‘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16.7% ‘그렇지 않다’ 3.3%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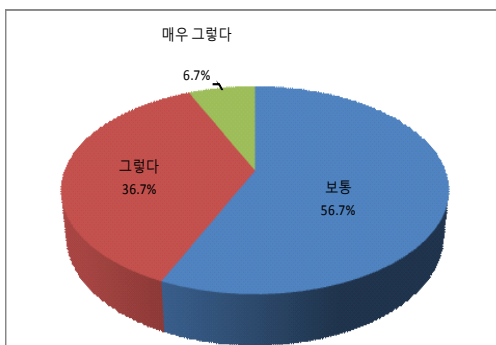
음식가격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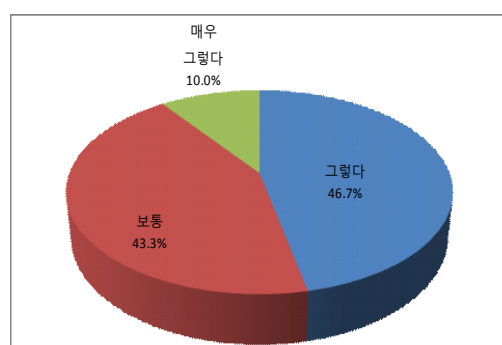
지역주민 친절성

관광안내 표지 및 팸플릿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56.7%, ‘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6.7% 순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마을관광을 위해 예약은 편리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 46.7%, ‘보통이다’ 43.3%, ‘매우 그렇다’ 10.0% 순으로 나타나 예약은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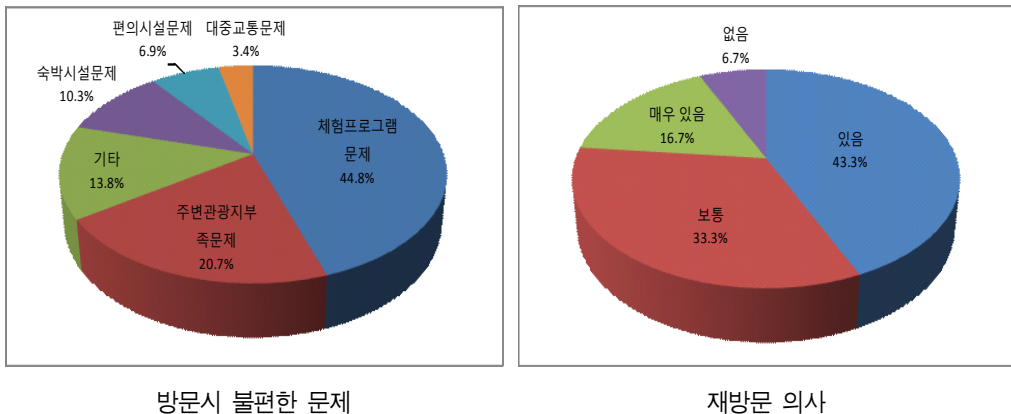
안내표지 및 팸플릿 구성



어촌체험마을 예약 편리성

충남 어촌체험마을 방문시 불편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체험프로그램 문제’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관광지 부족문제’ 20.7%, ‘기타’ 13.8%, ‘숙박시설 문제’ 10.3%, ‘편의시설 문제’ 6.9%, ‘대중교통 문제’ 3.4% 순으로 나타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을 재방문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있다’ 43.3%, ‘보통이다’ 33.3%, ‘매우 있다’ 16.7%, ‘없다’ 6.7% 순으로 나타나 재방문 의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설문분석의 시사점

우선 충남 어촌체험마을 관광사업의 주체인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리 및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관광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촌체험관광 사업이 해당 지역의 SOC사업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어촌체험마을 관광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 문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 관광사업에 대한 전망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에 도움이 되는 체험관광사업과 체험시설 확충 및 마을 SOC에 대한 사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촌체험마을 관광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①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리더, ②주민단결 및 협력, ③행정기관 협조 및 지도, ④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⑤편의시설설치, ⑥어촌주민의 관광서비스 교육 및 연수, ⑦민박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지역의 우수한 리더와 지역주민의 협력, 그리고 행정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 어촌체험마을 관광의 수요자인 방문객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 어촌체험마을 방문시에 가족들과 방문하는 경향이 있고, 인지경로가 대부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어촌체험마을관광을 인지하므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종합 정리하면, 갯벌체험과 바다낚시와 같이 역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충남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정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갯벌체험	30	3	5	4.10	0.76
바다낚시	29	2	5	3.86	0.88
일출일몰감상	29	2	5	3.83	0.89
전통어법체험	29	1	5	3.52	0.99
역사문화유적관람	29	1	5	3.24	1.02
향토음식체험	29	1	5	3.24	0.87

충남어촌체험마을 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간략하게 종합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 결과로서 주변시설 정비와 주차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방문객은 비교적 만

족하는 반면에 특산물·기념품 다양성,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향토음식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 어촌체험마을 관광에 대한 만족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변시설 정비	30	3	5	3.77	0.73
주차시설 편리	30	3	5	3.73	0.64
예약 편리성	30	3	5	3.67	0.66
지역주민 친절도	30	2	5	3.63	0.81
교육적 가치	30	3	5	3.60	0.77
쉽고 편한 접근성	30	2	5	3.57	0.68
안내표지 및 팸플릿 구성	30	3	5	3.50	0.63
숙박시설 충분성 및 쾌적성	30	1	5	3.33	0.88
체험프로그램 흥미성	30	2	5	3.33	0.71
주변관광지 유무	30	2	5	3.17	0.83
체험프로그램 다양성	30	2	5	3.10	0.61
음식가격 적당성	30	2	5	3.10	0.66
향토음식 다양성 및 맛	30	1	5	2.83	0.70
지역 특산물/기념품 다양성	30	1	5	2.80	0.85

따라서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시에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과 역동적인 프로그램 개발방향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지역의 어촌은 고령화와 무역자유화로 인해 낙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촌체험관광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충남의 어촌체험마을로는 7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태안군에 위치한 어촌체험마을을 수도권과의 접근성, '관광 태안'이라는 지역 브랜드로 나름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 서천군에 위치한 체험마을은 갯벌자원의 고갈과 연안환경의 변화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의 구성, 어촌계원의 참여형태, 추진방식, 지역의 지형적 조건, 주변의 관광·체험자원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방안도 마을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체험마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열의가 있는 반면, 활성화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관심도 없고 해결책을 마련할 의지도 약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문제점을 추진방식, 교육현황, 홍보, 외부연계체계,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어장관리 및 환경오염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마을이 추진해야 할 활성화방향과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광역)자치단체의 활성화방안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많은 예산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자치단체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과 의욕이 있는 체험마을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활성화의지가 없는 마을은 기존의 시설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활성화의 의욕을 갖춘 마을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이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원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마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지표는 실적 중심의 단순한 양적 지표 뿐만 아니라 의지와 열의를 평가할 수는 정성적인 지표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도 발전의욕이 강한 마을에 집중할 수도 있다. 선진 수범사례의 경우, 어촌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 자율관리어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중앙정부지정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마을과의 통합운영은 어촌체험마을의 홍보, 체험객 관리, 생태교육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공모사업을 형평주의에 따라 여러 마을에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효율성의 차원에서 발전여건과 의지가 있는 마을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성공적인 발전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다른 지역과 마을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체험마을의 홍보와 연계체계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많은 체험객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사무장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교육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체험마을에 대한 종합 안내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에 비치할 필요도 있다. 지역의 브랜드가 체험마을에 대한 홍보역할도 한다.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편의시설 확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은 자체 수익금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에는 편의시설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충남의 갯벌체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은 그늘막을 들 수 있다.

교육지원도 중요한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다. 농촌체험과 마찬가지로 특히 마을리더의 육성은 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어촌체험마을에는 혁신

의지와 발전의욕이 부족한 고령 노인이 마을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혁신의욕이 있다하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마을주민과 활동의지가 없는 주민에 대한 교육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서비스교육과 생태교육도 필요하다. 지금은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지원이 아닌 주민들의 혁신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교육사업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컨설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떤 마을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개별마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경영진단과 사업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컨설팅지원도 요구된다.

2. 체험마을에 의한 활성화방안

어촌계간, 어촌계 구성원간 갈등이 있는 체험마을에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갈등의 원인 주로 소득배당을 둘러싼 갈등이므로, 『어촌체험마을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갈등해소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홍보활동의 확대이다. 체험마을을 일차적으로는 지역사회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다. 지역 지자체 이외 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기업체, 유치원 등 민간교육기관, 아파트 부녀회 등등 많은 단체·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체험관광객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못지 않게 중요한 홍보방법이 “입소문” 홍보이다. 한 번 방문한 체험방문객은 그 e-mail 주소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체험마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방문객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체험객들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향토음식, 역사·문화유적도 포함된다. 어촌이라는 배경을 뛰어 넘어, 주변의 들을 이용하여 승마체험과 몽골 게르체험 등을 실시하는 선감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어촌체험관광이 다른 영역의 체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촌에서 사시사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관광마을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을별로 소득원에 차이가 있지만, 아직 어촌체험마을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어업소득이다. 고령화와 낮은 경쟁력에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에 체험관광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으나, 체험관광과 연계된 소득이 마을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을별 전망이 필요하다. 체험관광으로서의 소득원이 미약한 곳에서 체험관광에 집중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거의 다 갯벌체험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시사철 체험으로서의 한계, 어촌체험마을간 그리고 어촌체험마을과 기타 갯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간의 경쟁이 있다. 또한 갯벌체험은 기본적으로 '물 때 체험'이기 때문에 밀물 때 할 수 있는 다른 체험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체험프로그램은 마을의 지형적 조건, 주변의 연계자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찾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별로 또 다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민규(2008),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주민참여 관계, 『관광연구논총』,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곽행구(2008), 전남 갯벌 및 어촌마을의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김성귀(2001), 어촌관광의 활성화방안,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성귀, 홍장원, 박상후(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성귀, 홍장원(2004), 어촌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지인, 곽행구, 김농오(2008),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2001-2007)
- 동의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2008), 경남 어촌·어항 발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민상기, 김정연(1995), 어촌지역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협중앙회(2007), 어촌계분류평정자료
-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2008),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승우, 홍장원, 한광석(2004),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병길(2008),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 고창하전어촌체험마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해양대학교(2009), 영남 어촌체험마을의 운영현황 및 이용도 조사를 통한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2003),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 해양수산부(2006), 수산업 연차보고서
- 홍장원, 최승담(2008),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20권 제2호(통권 22).

무 료

<부록. 설문지>

일련번호

충남 어촌체험마을 관광 의견조사 (지역주민 대상)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남 어촌체험마을에서 거주하시는 정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무기명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보다 나은 충남 어촌체험마을의 미래를 위하여 정주민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드림

☎ 연락처 : 연구책임 성태규 박사 TEL. (041) 840-1131

※ 다음 각 문항 중 평소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답을 골라 ✓표를 해주시고, 일부 문항 중에는 간략하게 기입하는 경우(기타 란)도 있습니다.

1. 귀하의 지역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관심없음 ② 관심없음 ③ 보통 ④ 관심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2. 귀하의 지역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모름 ②모름 ③보통 ④알고 있음 ⑤매우 잘 알고 있음

3. 귀하의 지역 어촌체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귀하는 귀하의 지역 어촌체험 마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다음은 어촌체험관광의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따라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정말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됨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됨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이 확충됨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지역의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됨					
지역의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 발생					
관광객 과밀로 지역의 혼잡이 증가함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유발됨					

11. 어촌체험마을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어촌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높은 사항 부터 차례로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순위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항목	우선순위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리더	
행정기관의 협조 및 지도	
민박여건 개선	
어촌주민의 단결과 협조	
어촌주민의 관광서비스 교육 및 연수	
편의시설 설치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12. 귀하의 경간 소득비중은 어떻습니까? 어업소득, 농업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퍼센트(%)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연간총소득	어업소득	어업외 소득	
		농업소득	기타소득
100%	%	%	%

13. 현재 귀하께서 종사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어업종류		종사여부
면허어업	양식어업	
	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	
허가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신고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인적사항

1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15. 귀하의 이 지역 거주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20년 ④ 20~30년 ⑤ 30년 이상

16.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 귀하의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충남 어촌체험마을 관광 의견조사 (방문객 대상)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남 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하신 방문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무기명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에만 사
용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보다 나은 충남 어촌체험마을의 미래를 위하
여 체험객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드림

☎ 연락처 : 연구책임 : 성태규 박사 TEL. (041) 840-1131

※ 다음 각 문항 중 평소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답을 골라 ✓표를 해
주시고, 일부 문항 중에는 간략하게 기입하는 경우(기타 란)도 있습니다.

어촌체험 호응도

1. 귀하께서는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에 함께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 ① 처음 ② 두 번 ③ 세 번 이상

2. 귀하는 어느 분과 동반하셨습니까?

- ① 혼자 ② 친구 ③ 가족 ④ 연인 ⑤ 단체 ⑥ 기타()

3. 충남 어촌체험마을 방문 전에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 ① 잡지 및 신문 ② TV ③ 인터넷 ④ 주변의 권유 ⑤ 기타()

4. 충남 어촌체험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계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5. 충남 어촌체험을 할 때 어촌체험마을에 체류했던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이상

6. 충남의 어촌체험을 위해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민박 ② 펜션 ③ 여관(모텔)
④ 콘도 ⑤ 기타()

7.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을 위해 경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십니까?

- ① 총 체험비용(만원)
② 총 식사비용(만원)
③ 총 숙박비용(만원)

어촌체험 프로그램 만족 및 개선사항

다음은 충남의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의 의견을 체크해 주십시오.

충남의 어촌체험 프로그램들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참여하고 싶지않음	보통	참여하고 싶음	매우 참여하고 싶음
8. 향토음식체험	①	②	③	④	⑤
9. 갯벌체험	①	②	③	④	⑤
10. 전통어법체험(예. 독살)	①	②	③	④	⑤
11. 일출/일몰 감상	①	②	③	④	⑤
12. 역사문화유적관람	①	②	③	④	⑤
13. 바다낚시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충남의 어촌체험마을 관광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체험 프로그램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숙박시설이 충분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주차시설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주변시설(화장실 등)이 잘 정비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어촌체험 제외)	①	②	③	④	⑤
22. 지역 기념품/특산품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향토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음식가격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지역 주민들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광안내 표지 및 팸플릿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예약은 편리하다.(전화 및 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28. 충남 어촌마을 방문 시 불편했던 점을 생각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답변)

- ① 숙박시설 문제
- ② 대중교통 문제
- ③ 주변 관광지 부족문제
- ④ 체험프로그램 문제(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포함)
- ⑤ 내부이동경로의 복잡함
- ⑥ 편의시설 문제(주차시설, 화장실 등)
- ⑦ 지역주민의 친절 문제
- ⑧ 기타()

29. 귀하께서는 충남의 어촌 체험마을에 재방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음 ② 있음 ③ 보통 ④ 없음 ⑤ 전혀 없음

인적사항

30.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31.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직장인 ③ 주부 ④ 기타

32. 귀하의 연령?

- ① 20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 충남지역 어촌체험휴양을 위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이재현 초빙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10-01 · 충청남도 어촌체험관광실태와 활성화 연구

글쓴이 · 성태규, 이재현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03(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35-9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